

69

너부터
2011 가을호

4 **세상을 바꾸는 생각**
4 아이들의 '성'이 난감한 어른들에게
8 연주와 주노의 그날 이후 - 섹스하는 상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어른은 누구일까
12 속바지, 똥고, 개미, 삼겹살- 부모로서 나의 성인식은 몇점 짜리인가?

16 **음악과 여성**
16 오래오래 듣고 싶은 위로의 목소리 - 싱어송라이터 시와

21 **삶의 돌보기**
21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어떻게 써먹는 건가요?

25 **보고 싶은 얼굴 (한국성폭력상담소 앙코르 발기인)**
26 첫 번째 얼굴 - 정경자 "여성주의 상담의 힘은 성폭력 생존자로부터 나옵니다"
29 두 번째 얼굴 - 황재호 "지킴이로 활동했던 시절은 제 젊은 날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32 세 번째 얼굴 - 조윤주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36 **그때 그 사람**
37 성폭력 생존자의 긴급전화를 기다리며 밤을 지새던 지킴이

40 **반성폭력 Q&A**
40 남자고등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한 남학생의 가슴을 자꾸 만집니다.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42 **4컷의 철학**
42 안아운사 수련생의 성희롱 요괴 퇴치기

43 **Hello, 반성폭력**
43 정치인들은 개념을 다 버릴 생각을 해야 한데, 그래도 정치인 하실 수 있겠어요

44 **웬대! 상담소**

48 **본편보다 재밌는 후일담**
49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20주년 홈커밍데이 감동의 하이라이트, <상담소는 사랑을 신고> 제작비화

52 **열린터 이야기**
52 친애하는 D에게
55 열린터 다이어리

56 **상담소의 밥상**
56 조개 등백 해물부추전과 매콤달콤 닭가슴살감자볶음

58 **나눔과 참여**
58 상담소를 응원하는 특별한 P·A·R·T·Y

61 **훈훈한 기부**

63 **아낌없이 주는 나무**



퍼넛 사단법인 한국성폭력상담소 퍼넛이 이윤상 만든지 편집부 디자인 디자인이즈 02-363-0773 퍼넛날 2011년 9월 9일
주소 (121-897)서울시 마포구 합정동 366-24번지 2층 전화 02-338-2890~2 팩스 02-338-7122 이메일 ksvrc@sisters.or.kr

아이들의 '성'이 난감한 어른들에게

정정희 | 본 상담소 부설 센터 열림터 前 활동가

'성교육'에 대한 정의는 교육전문가마다 조금씩 다르긴 하지만 일치된 견해는 '성'은 인간관계의 표현이며, 성교육은 성을 자연스럽게 풍요롭게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 서로의 입장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마음, 성에 대한 올바른 지식, 성적인 욕구를 적절히 조정하는 자기조절력 즉 인간적인 삶의 방식을 키워주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성교육자로서의 어른들은 이런 목표를 얼마나 이해하고 있으며 아이들과 성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오히려 '성'이라는 낱말이 교육 앞에 붙으면 어른들은 곤혹스러워 합니다. '성'에 새삼 '교육'이라고 이름붙이는 것이 민망스럽게 느껴질 수도 있고, 혹은 '뭐 그런 걸 배우나, 나이 들면 절로 알게 되는 거지' 하기도 하며, 필요하다고 생각될 때도 있지만 '성'이란 주제를 가지고 아이들과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야 할지 난감해 하기도 합니다. 부모들은 아이가 적당한(?) 나이가 될 때까지, 성에 대해 알아도 될 때까지 (물론 이 시기도 부모 마음대로) 혹은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대면서, 성에 대한 대화 자체를 미루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성교육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가진 어른들도 성교육을 언제쯤 시작해야 할지, 질문에 대한 답은 어디까지 해야 할지, 괜히 호기심을 부추기는 것은 아닐지 혼란스러워 합니다. 이런 우리의 망설임과 혼란의 원인은 무엇일까요?

사실 우리의 지난 시절을 돌이켜 보면 자신의 '성'에 대해 별로 생각해 본적도 없고, 기초적인 성 정보조차도 제대로 알지 못한 채로 자라면서 성적인 문제나 성충동 때문에 겪었던 많은 혼란들을 미처 해결하지 못하고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갖게 된 성에 대한 갖가지 통념들과 행동들은 우리 사회의 성문화 - 성의 상품화, 성의 폭력화, 현실과 동떨어진 성의 이미지화 등 - 를 만들어 냈습니다. 한 사람의 성에 대한 태도, 성 의식, 성 가치관 등이 그 사람을 둘러싼 환경과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통해 성장한다는 점을 생각하면, 우리 아이들 또한 우리가 그랬던 것처럼 어른들이 만들어낸 성의식과 행동들을 그대로 배우고 익히게 되겠지요. 더구나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게 아이들의 신체적 발달 속도도 빠르고 그에 따라 성적인 호기심이 커진 아이들이 접할 수 있는 성상품의 내용도 다양하고 자극적입니다. 아무리 부모가 아이들의 접근을 통제하려 해도 제어하기 어렵습니다. 어찌 보면 오늘날 우리가 '요즘 아이들은……' 하는 아이들의 성문제는 아이들의 문제가 아닌 바로 우리의 문제인 것입니다.

아이의 성적인 어떤 행동이 걱정스럽다면, 혹은 성에 대한 호기심이 큰 아이 때문에 불안한 생각이 든다면 아이의 행동 자체에 대한 문제를 찾기 보다는 현재의 상황을 읽는 자신의 성의식을 살펴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왜냐하면 성과 관련된 상황이나 질문을 맞닥뜨렸을 때 특정한 방식으로 반응하고 생각하는 것은 자신의 성의식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의 성 가치관에 따라 다른 사람들의 성 행동을 판단합니다. 특히 아이들에게는 더욱 엄격하게 부모의 뜻에 따라 행동하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가진 성 통념들은 여러 방면에서 아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치게 됩니다. 예를 들면 어른들이 아이들의 성에 대한 궁금증을 별스럽게 생각하거나 성적인 행동을 금지하는 태도를 보이면 아이들은 자신의 몸의 느낌이나 감정의 표현을 자연스럽게 하지 못하고 어른들의 눈치를 살피게 됩니다.

남성의 성 욕구는 자연스런 일로 여기고 여성의 성 욕구에 대해서 불편해하는 마음은 사춘기 남자아이의 자위에 대해서는 당연해 하며 방에 휴지통까지 놓아주는 반면 어린 딸의 자위는 때려서라도 못하게 하려 합니다. 폭력적인 성 행동을 하는 아이들은 사춘기에 그럴 수도 있는 충동적인 행동으로 이해하는 반면, 폭력의 대

상이 되는, 약하거나 장애가 있거나 따돌림을 당하는 아이들의 괴로움에 대해서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맙니다. 미성년 남녀가 성관계로 임신을 하면 피임을 하지 않은 책임은 고스란히 여성에게 납니다. 임신을 하는 것은 여자이니 알아서 준비하라는 말이겠지요.

동성애에 대해 잘 알지도 못하면서 동성 간 사랑을 다룬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전염병에 옮는 것처럼 불안해 합니다. 성에 대해 적극적인 남성과 소극적인 여성에 대한 고정관념은 '열 번 찍어 안 넘어가는 나무 없다'거나 '용기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는 말을 만들어 냈지만, 정작 현실에서는 상대가 아무리 아니라고 해도 내 송이라며 무조건 사랑을 강요하는 스토커를 만듭니다. 심지어 성폭력피해자가 술을 마셨을 땐 처벌을 감해주는 이유가 되지만, 성폭력피해자가 술을 마셨다면 피해 사실을 인정받기 어려운 상황도 당연하게 여깁니다. 어린이성폭력이 아는 사람에 의한 피해가 80%에 이른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아는 사람이 우리 아이의 주변 사람일 수도 있다는 생각은 하지 않고 아이에게 그저 '낯선', 나쁜 사람을 피하라고만 가르칩니다.

이렇게 살펴보면 성교육이 단순히 성에 대한 정보를 알려주는 것이기만 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때문에 성교육 전문가들은 하나같이 성교육에서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할 점은 아이들과 '성 이야기'를 나누고자 하는 나(부모, 교사 등의 성교육자)의 성 태도, 성 행동 등 성에 대한 자신의 전반적인 생각과 태도를 살펴보는 것이라 합니다. 성 교육자로서 자신의 성에 대한 이해와 존중을 바탕으로 해야만 아이의 성을 인정하고 다양한 성적인 질문이나 행동 또한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아이가 엄마 뱃속에 있는 그 순간부터 이미 성교육이 시작된 것입니다. 아이가 딸이었으면 혹은 아들이었으면 하고 바라는 마음에서부터, 태어난 후 성별에 따라 아이를 대하는 부모의 태도, 말과 행동, 자라면서 겪게 되는 모든 것들로부터 아이들은 성을 어떻게 보아야 할지, 어떻게 대해야 할지, 보고 듣고 익힙니다. 이렇게 의식하지 않고 부모가 보여주는 것만으로 아이들이 배우고 알게 되는 것이 성교육의 1단계라면 2단계는 바로 성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 것입니다.

성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부모가 백과사전이 될 필요는 없지요. 모범답안보다는 아이의 성적인 호기심을 이해해주고 성에 대한 질문에 귀 기울여주는 어른들의 태도가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자기 몸에 대한 이해와 사랑, 다른 사람의 몸에 대한 호기심과 배려, 내 몸과 타인의 몸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는 지, 어떻게 관계를 맺는 것이 행복한 관계 맺기인가에 대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성에 대한 이야기를 어떻게 시작할까 고민하는 것이야말로 아이와의 소통을 위한 중요한 시작입니다. 우리가 아이들과 함께 하는 성 이야기는 아이들이 자라면서 겪게 될 수많은 성적인 문제에 슬기롭게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힘이 될 것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리니 괜찮다"와 같은 이런 마음 보다는, "아이가 곧 클 텐데 얼른 '훈련'을 시작해야지" 하는 마음가짐이 중요하지 않을까요?

※ 정정희 사자(사람과 자연을 사랑하는 이)라는 별칭의 반값을 하느라 제주 송당에 살고 있습니다. 용량이 부족해 나머지 반은 차츰 채우려고 해요.

연주와 주노의 그날 이후

—
섹스하는 십대들에게 정말로 필요한 어른은 누구일까?

두리번 | 현직 고등학교 교사

그날 이후

어느 가을날 오후, 연주(가명)는 남자친구를 집으로 불렀다. 부모님이 안 계신 가운데 오붓한 시간을 보내던 두 사람은, 영화도 보고, 맛있는 것도 해먹고, 그리고 섹스도 했다. 거기까지는 좋았다. 관계를 가지는 도중에 아버지가 집으로 돌아오기 전까지는. 그 순간 이후로 연주는 집에서 학교에서도 지옥 같은 나날을 보냈다. 연주는 아직, 고등학생이었기 때문이다.

자신이 본 장면이 강간이었다고 ‘믿고 싶었던’ 아버지는 그 장면을 목격하자마자 재빠르게 사진을 찍었다. 그리고 그날 바로 상대 남학생의 학교로 전화를 넣어 사랑하는 자신의 딸을 강간한 남학생을 당장 처벌하라며 거세게 항의했다. ‘그 자식이 콘돔까지 가지고 있었다’며 아버지는 분노했다. 소식은 연주네 학교로도 전해졌다. 상대 남학생의 학교에서 전화를 한 것이다. 이 두 학생이 ‘사고를 쳤으니’, 우리는 우리대로 강력 처벌할 테니 당신네 학생은 당신들이 알아서 처벌하시라.

연주네 학교도 난리가 났다. 그동안, 쉬쉬해 가며 남자친구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학생들의 고민을 들어주거나, 혹은 임신중절을 하게 되는 학생들의 사전 사후에 대한 이러저러한 조치들을 해 주는 일이 없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공식적으로 처벌을 요구받은 것은 처음이었던 것이다. 선생님들은 이 일에 대해 연주에게 벌을 주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헛갈려했다. 당연히 징계해야 한다는 의견과 개인적 상담으로 끝나면 될 일이라는 의견이 맞섰다. 징계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상담으로

끝날 일이라고 미루었고, 상담을 담당하는 부서에서는 이젠 더 이상 이런 일들을 상담으로 쉬쉬하고 끝내지 않겠다고 이제는 따끔히 다스려 부적절한 행동을 근절해야 한다고 받아들였다. 두 부서가 팽퐁 치듯 사건을 주고받는 동안 연주에 대한 소문은 점점 퍼져나갔다.

연주는 상담 선생님 앞에서 남자친구와의 관계에 대해 다 털어놓을 것을 요구받았다. ‘학생이 어떻게 이런 짓을’이라고 하며 꾸짖는 상담 선생님 앞에서 연주는 ‘그래서 그동안 참아왔다고 항변했다. 연주는 고3이었지만 연주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학교에서 결정하기 전까지는 며칠간 수업도 들을 수 없었다.

일은 상담 쪽으로 수습되는 듯하더니 다시 징계 쪽으로 기울었다. 연주 아버지가 ‘애가 이 지경이 되는 동안 학교는 대체 뭐 하는 거냐’고 항의했기 때문이다. 가정에서 그렇게 요구한다면 강하게 지도하자는 쪽으로 여론이 기울어, 연주의 사건을 놓고 선도위원회가 열렸다. 선도위원회에서는 다시 한번 연주의 이야기가, 자세하게 브리핑되었다. 더 많은 선생님들이 연주의 일을 알게 되었다. ‘다 큰 애들 둘이서 결정한 일인데 뭐가 문제냐’는 의견과 ‘그렇다고 이 일을 학교에서 내버려 두라는 말이냐’는 의견이 대립하다가 결국은 벌을 주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 연주는 한 달간의 사회봉사 처분을 받았다. 고3임을 고려해서 수능 시험이 끝나고 봉사를 하라는 배려가 뒤따랐다.

무능해서 무서운 어른들

서너 달만 있으면 스무 살이 되는 나이였던 연주는 단지 열아홉이고 고등학생이라는 이유만으로 이 모든 일들을 고스란히 당하고만 있어야 했다. 연주를 사랑했던 연주의 아버지는 결국 연주를 학교에서 손가락질 받는 아이로 만들었고 징계 학생으로 만들었다. 연주를 교육하려던 선생님들은 그저 어른이라는 이유로 책임감



에 대해, 신중함에 대해 한 마디씩 훈계했으나 연주가 이 과정에서 무엇을 배웠는지는 잘 모르겠다. 이 과정에서 연주를 '위한다는', 혹은 '가르친다는' 명목으로 벌어진 연주에 대한 인권침해에 대해서 구구절절이 논하고 싶지는 않다. 그저 연주는 무슨 생각을 했을까, 하고 상상해 본다. 어른들은 참, '무능해서 무섭다'고 생각하지는 않았을까.

몇 년 전 한국에도 소개된 미국 영화 주노(JUNO)에는 임신한 여고생 주노의 이야기가 나온다. 주노는 무척 망설이다가 부모에게 임신 사실을 말하지만 부모들은 애써 여유 있게 상황에 대응한다. 주노가 없는 데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서로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기는 하지만, 주노 앞에서는 놀라지 않은 척 행동하며 아기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주노 스스로 결정하도록 맡겨둔다. 주노는 아기를 낳기로 결정하고 배가 부른 몸으로 학교도 아무렇지 않게 다닌다. 부모는 주노가 아기를 입양시키기로 한 집으로 함께 찾아가 주고, 주노와 아무렇지 않게 일상의 대화를 나누고, 의견을 주고 받으며 주노의 임신과 출산을 도와준다.

연주가 만난 어른들과 주노가 만난 어른들 중, 누가 더 책임감 있게 사건을 해결한 사람인가? 누가 더 신중하고 어른답게 행동한 사람인가? 만약 연주가 주노와 같은 부모와 학교를 만났다면 아마 연주의 그날 저녁 이후의 나날들이 그렇게 끔찍하지는 않았을 것이다. 연주의 부모님들과 선생님들이 연주에게 가르치고자 했던 '책임감'이라든지 '신중함'이라든지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더 잘 배우게 되었을 수도 있다.

어른답게 인정하기

어떤 어른들은 '서양 애들'과 우리는 다르다고 할지도 모르겠다. 그렇지만 다른 것은 아이들이 아니라 어른들의 태도이다. 이미 벌어진 일에 대해서 인정하고 받아들인다. 애써 부정하느냐의 차이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많은 청소년들이 성관계를 어린 나이에 경험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통계자료는 이미 여러 번 보도되었다. 그렇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면서 눈 감고 있다. 먼 나라 이야기라고, 그리고 혹시 남들 다 그렇더라도 우리 아이만은 아닐 거라고 믿고 싶어 한다. 그렇지만 이미

벌어지고 있는 현실을 애써 부정한다고 달라지는 것은 없다.

청소년들의 풋풋한 첫사랑은 '순수하다'는 생각은, 환상이다. 학교라는 공간이 순결한 학생들의 낭만적인 배움의 공간이라는 생각은 터무니없는 허구다. 여학생들은 남선생님을 보며 '섹시하다'고 부르짖기도 하고, 남학생들은 여선생님의 어깨에 손을 올리며 '사귀자'고 하기도 한다. 학교를 배정받으면 학생들은 '그 학교 레즈있나요?'하는 질문을 네이버 지식인에 올리고, 어두운 곳에서 서로의 사생활 정보를 주고 받는 여학생들은 누군가를 '걸레'로 낙인찍기도 한다. 남학생들은 '여자 따먹는 법'을 주고 받으며 권력 관계에서의 우위를 장악해 나간다. 이진, 새로운 현상도 아니다. 이 정도는 학교 생활의 고전적 레퍼토리 아니던가.

2차 성징이라는 왕성한 몸의 변화를 겪는 청소년들에게서 섹슈얼리티를 제거하려는 모든 시도는 개인에 대한 인권 침해일 뿐더러 가능하지도 않은 시도이다. 이 시기에 가지게 되는 몸에 대한 호기심과 성을 경험해보고 싶은 마음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라는 것을, 그러므로 연애 관계를 맺게 되는 청소년들이 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학교는 섹슈얼한 공간이고 청소년들은 하나의 성적 주체라는 것을, 쿨하게 인정해야 한다.

청소년들이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의 무능함이 청소년들을 망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우리가 정말 안타까워해야 하는 것은 콘돔을 사용한 연주가 아니라 연주가 '참는' 동안 그 고민을 함께 하는 사람이 되지 못했던 우리들이다. 우리가 씹쓸해 해야 하는 것은 많은 학생들이 성관계를 경험하고 있다는 사실이 아니라, 아직도 '걸레'라고 손가락질 하는 문화, '여자 따먹는 법'을 주고 받는 문화가 남아 있다는 사실이다.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것은 '어떻게 하면 최대한 미룰 것인가'가 아니라 바람직한 성 의식을 갖게 하기 위한 성교육의 내용과 방법이다.

현실을 인정하지 않고 내려버리는 성급한 판단은, 때로는 무서운 결과를 낳는다. 청소년들이 경험하는 성을 자연스럽고 건강한 것이라고, 살아있는 증거라고,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여유와 지혜를 호기롭게 가져보자. 어른답게.

※ 두리번 현직 고등학교 교사. 개발랄한 십대들과 근엄한 어른들 사이에 낀 어중중. 끈대같은 어른이 되지 않으려고 전전긍긍

속바지, 똥고, 개미, 삼겹살

—
부모로서
나의 성인식은
몇점 짜리인가?

김홍미리 | 한국여성전화 활동가 딸 둘 키우는 페미니스트, 딸 셋을 낳아 키우는 게 꿈이지만 하나 더 나오면 인생이 내 소멸될 것 같은 공포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한 엄마이며, 과연 인간이 인간을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를 골백번 자문하는, 소심한 엄마.

문제는 속바지였다.

길고 지난한 싸움이 될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남편 그리고 나 자신과 싸움 말이다.

큰 딸이 기저귀를 떼면서부터 문제는 시작됐다. 원피스 안에, 팬티 위에, 속바지를 반드시 입히는 남편과 왜 굳이 속바지를 입혀야 하느냐는 나의 입장이 엇갈렸다. 엄마인 나는 어릴 때는 치마를 입어본 적이 없고 커서 치마를 입어야 할 때도 속바지를 입어본 적이 없다. 아들을 낳으려다 딸만 낳은 집 막내로 태어나 부모님들은 나에게 치마를 입히지 않았고, 고등학교 시절 교복 치마를 입기 시작했을 때는 여성용 속옷을 챙겨줄만한 사람이 내 주변에는 없었다. 모순적이게도 이런 나의 불우한(?) 환경이 치맛 속 나의 자유를 보장했다고나 할까.

반면, 나의 딸들은 딸의 - 딸로서의 - 삶에 관심이 무척이나 많은 부모에게 양육되고 있다. 엄마인 나의 패션감각을 신뢰하지 않는 남편이 아이들의 옷을 주로 코디한다. 하기에 거의 매일같이 속바지 문제가 대두된다. 남편이 속바지를 입혀 놓으면 슬쩍 내가 벗겨 보내는 은근히 스킬 있는 싸움이랄까. 남편에게 속바지를 입혀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물으면 “에이 어떻게 안 입혀 여자앤데.”한다. 그리고, “(안 입히면) 이상해~.” 한다.

남편의 마음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유아성폭력이 빈번히 일어나고 있고 성폭력을 다루는 신문이나 방송들은 가해자의 그릇된 ‘욕망’이라는 식으로 문제를 왜곡하고 있고, 관련 정책 역시 가해자에게 성욕억제제를 투입한다는 등 성폭력을 다시 충동/욕망의 문제인 양 떠들어댄다. 이런 상황에서 욕망의 대상이 될 여자가 많은 - 딸들을, 욕망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단속하는 일을 행하게 되는 것은 어찌보면 당연한 일이 된다. 속바지를 입히는 남편의 심리는 분명 그런 불안에서 시작됐을 것이다. 하지만 유아성폭력과 속바지의 상관관계는 밝혀진 바 없고, 밝혀질 리도 없다. 충동적이 아니라, 치밀하게 탐색하고 계획적으로 벌이는 가해자의 범행이 그따위 속바지 하나에 좌우될 리가 없지 않은가.

나의 말에 수궁하면서도 속바지를 놓지 못하는 남편은 이제 다른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놀이터에서 놀다가 모래 들어가면 어떡해”

“어디에?”

맙소사. 이제는 딸의 성기에 모래가 들어갈 걱정을 한다. 들어가긴 뭐가 들어가나. 어릴 때 나도 성기에 뭐가 들어간다는 식의 유언비어를 많이 들었다. “대중목욕탕에 들어갔다 물 속에 떠다니던 정자가 거기에 들어가서 그 여자 임신됐대.”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되는 말이지만, 나는 이 루머를 듣고 다시는 대중목욕탕에 가지 않았다.

속바지에는 쿨한 나는, 알몸에는 쿨하지 못하다.

아이들이 목욕하고 나와 알몸으로 집안을 돌아다닐 때, 나는 아이들을 향해 이렇게 말한다.

“팬티 입어! 똥고에 개미 들어가!”

그 말을 하면서도 ‘아니 이게 말 되는 거야?’ 하고 생각한다. 내가 대중목욕탕을 가지 못하는 것처럼, 딸들에게도 팬티를 입지 않으면 보지에 뭔가가 들어간다는 공포를 심어주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은) 한다. 그러면서 “똥고에 개미 들어가”는 아이들에게 가장 빠르게 옷을 입히는 방법이며 나의 불안을 해소하는 방법이기도 기꺼이 내뱉는다. 대중목욕탕의 후유증인지 아니면 사회가 나에게 준 잘못된 신념인지, 아이들이 맨몸으로 침대며 소파, 놀이방을 돌아다니며 “철퍼덕” 앉아 놀 때면 나는 혹시라도 “똥이 들어갈까봐” 불안하다.

성기를, 딸아이를 보호해야겠다는 생각은 나에게 끊임없는 물음을 묻게 한다. ‘무엇으로부터’ 보호하려 하나, 누군가로부터 보호할 것인가, <무엇을 보호할 것인가>, 어디까지 할 수 있나 그리고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10년 어느 날 큰 아이가 말했다.

“엄마, 허지원 오빠가 자꾸 <별이 잠지는 삼겹살>이라고 놀려”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나는 몹시 당황했다. 오만가지 생각이 머리를 스쳤다. 두서없이 딸에게 이것저것을 물어봤던 것도 같다. “오빠가 니 잠지를 봤냐, 언제 그런 말을 했냐, 너도 오빠 고추 봤냐” 등등등……. 삼겹살은 무슨 뜻으로 한말일지, 딸아이의 보지를 본 다음에 대음순 소음순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말장난을 한 건지…… 생각이 많아졌다.

‘무슨 일이 있었나? 폭력인가? 아니면 아이들끼리의 성적 놀이인가?’ 폭력이든, 아이들끼리 성적 놀이든 둘 다 나에게 당황스러운 일이다. 아니 성적 놀이라면 더 당혹스러울 것 같았다. 그 다음에는 무얼 물어보고 어떻게 해야 하나. 그 남자아이의 부모를 만나야 하나? 그 아이에게 무엇이 잘못이라고 말해야 하나, 생각은 더 복잡해졌다. 폭력이라면 가해자라 하겠지만 놀이라면 그 똥도 아니다. 폭력이라면 사과를 받고 어린이집을 나가라고 요구하겠지만 놀이라면 내 딸도 즐거웠던 놀이다. 그리고 이도 저도 아닌 그냥 말장난 일수도 있었다. 이 사건의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어린이집 선생님, 원장님과 상의했지만 큰 의미를 부여하지 말라고 했다. 딸아이 있는 부모들의 유난 정도로 마무리 된 듯 싶다.

딸 둘 키우는 페미니스트로서, 아이들에게 언제든 올 수 있는 성폭력의 가능성을 안다. 그리고 항상 내가 엄마로서 담담하고 당당히 대처할 것이라는 신념(?)이 있다. 현대 그런 의지는 일상의 소소한 부분에서 마구 흔들린다. 나 역시 딸들을 성적으로 보호만 하려 하고 있고, 통제와 보호 아닌 다른 방식의 언어를 찾지 못했다.

최소한 <내 몸은 나의 것>이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말이 아닌 몸으로 알려주려고 했던만, 내 몸은 소중한 것이라는 말에 밀려, 나조차 <소중하니까 보호해야 하는 몸>으로 아이들의 몸을 길들여가는 게 아닐까. <자유롭기보다는 안전해라>는 메시지를 주고 있는 건 아닐까.

속바지와 똥고, 개미, 삼겹살…… 이 안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엄마가 진정 되고 프다.

※ 김홍미리 딸 둘 키우는 페미니스트. 딸 셋을 낳아 키우는 게 꿈이지만 하나 더 나오면 인생이 내 소멸될 것 같은 공포로 인해 그 꿈을 포기한 엄마이며, 과연 인간이 인간을 ‘키운다’는 것이 말이 되는 일인가를 골백번 자문하는, 소심한 엄마.

오래오래 듣고 싶은 위로의 목소리

열차

참 많은 노래들이 그야말로 ‘쏟아지는’ 세상입니다. 노래듣는 것을 좋아한다고 스스로 이야기하고 다니는 저이지만 이 ‘노래의 홍수’ 가운데에서 저의 귀와 마음을 사로잡는, 그래서 오랫동안 듣고 싶은 노래를 만나는 것은 생각보다 쉽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만큼 그런 노래를 만났을 때에는 반갑고 고마운 마음을 감출 수가 없게 되는데 이 글을 통해서 그 마음을 좀 드러내보려고 합니다. 어느 한 곡만 이야기하기에는 좋은 노래를 참 많이 만들고 부르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시와’의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시와는 어쿠스틱 기타를 들고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인디음악’ 하면 생각나는 서울 홍대 부근의 클럽에서 주로 공연하고 가끔은 그 바깥에서도 합니다. 본인의 이름으로는 EP¹와 정규앨범을 각각 하나씩 발매했고, 최근에는 시와와 대부분의 공연을 함께 하는 기타리스트 Rainbow99와 함께 ‘시와무지개’라는 이름으로 두 번째 앨범을 내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영화 OST에 참여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시와는 공연할 때면 잊지 않고 본인의 이름에 대한 소개를 하는데요. 이집트의 사막 이름이기도 하지만, 사실은 시와가 즐겨찾았으나 지금은 없어진 홍대 앞의 맥주바의 이름이었다고 합니다. 없어지는 것이 아쉬워서 본인이 이름을 따왔다고 해요.

자신의 또다른 이름을 자신이 가던 곳에서 짓는 것처럼, 대체로 그녀의 노래는 그녀가 생활 속에서 보고 느끼는 것과 가까이 있습니다. 시와의 홈페이지²에 가면 1



집 수록곡들에 얽힌 이야기를 읽을 수 있습니다. 이 글을 한 줄 한 줄 읽어내려가면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공연을 보고 나서 들었던 기분이라든지, 여행하면서 본 것들, 일상 속에서 만난 평범하고 작은 것들이 소재가 되어 하나의 노래, 그리고 하나의 앨범으로 탄생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수많은 싱어송라이터들이 곡을 만들면서 자신의 주변에서 영감을 받았지만, 그 누구의 노래보다도 시와의 노래는 ‘시와의 마음 속 이야기’라는 느낌이 강하게 들곤 합니다. 일기를 들여다보는 기분이 든다고나 할까요? 제가 처음 들었던 시와의 노래가 EP에 수록된 ‘길상사에서’였는데, 길상사는 실제로 시와가 매우 좋아하는 절이라고 합니다. 시와는 자신에게 있어 노래는 표현이라고 말한 적이 있고³, 사람들이 자신의 노래를 들었을 때 마음 속에 그림 한 폭이 그려졌으면 하는 마음으로 노래한다고 말하기도 했는데, 그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저는 ‘길상사에서’를 처음 들었을 때의 느낌을 떠올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한 번도 가 보지 않은 그 곳이 눈 앞에 펼쳐지는 기분이었거든요. 길상사에서 시와가 만든 또다른 노래 ‘랄랄라’를 들어도 그렇고요. 공간에 대한 애정이 느껴지는 노래들입니다.

이 ‘랄랄라’를 포함해 열 곡이 넘게 수록된 1집 앨범 ‘소요(逍遙)’가 2010년 2월 세상에 나왔을 때, 곳곳에서 나오는 평들에는 ‘전형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이 빠지지 않았습니

1 Extended Play의 약자. 싱글앨범과 정규앨범의 중간 위치 음반.
2 <http://withsiwa.com>
3 http://weiv.co.kr/view_detail.html?code=interview&num=2886



냐?’라는 이야기가 담겨있었기 때문이었는데, 저는 이 이야기가 굉장히 인상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전형적’이라는 말 자체에는 새로운 것을 시도하지 못했다는 부정적인 뉘앙스가 담기는 것이 대부분이라, 많은 뮤지션들은 ‘전형적인 것에서 탈피했다’라는 말을 듣기 원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시와는 오히려 ‘전형적인 것이 뭐가 나쁘냐?’며 되물어서 혀를 찼을 뿐만 아니라, 동시에 ‘전형적인 여성 싱어송라이터’는 무엇인가 하는 의문을 던져주었습니다. 수많은 공연에서 ‘여성 싱어송라이터 특집’이라는 말을 보지만, 남성 싱어송라이터라는 말은 보기 힘듭니다. 그들은 그냥 ‘싱어송라이터’입니다. 흔히 어떤 직업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말에 굳이 ‘여성’이라는 말이 강조될 때는 여성이 그 분야에 있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을 때입니다. 이렇게 ‘특수하게’ 위치지어진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은 다시금 ‘전형성’이라는 말 안에 묶이게 됩니다. 사실 여성 싱어송라이터들의 노래들은 남성 싱어송라이터들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습니다. 시와도 2008년, 2009년에 나오는 여성 싱어송라이터 앨범의 리뷰에 ‘전형적이지 않아서 좋다’라는 말이 들어간 것을 보고 기가 죽었다가, 나중에는 오히려 그 질문의 의도를 뒤집어서 ‘그게 어때서?’라고 반문하게 된 것이라는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⁴ 이러한 전형성이 부각되면서 노래 자체가 어떠한지를 보기보다는, 그것이 기존의 틀(이라고 생각되는 음악들)과 비슷한가 아닌가가 어떤 앨범의 주된 평가 기준이

되는 모습들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앨범에 대한 평가에서는 이러한 점이 더욱 두드러집니다. 그러나 시와는 먼저 여성 싱어송라이터의 전형성이라는 기준 자체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이에 대해 생각하게 하고 본인의 음악에 좀 더 사람들을 집중시킬 수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에 시와가 어떤 가수인지 이야기하면서, 홍대 바깥에서도 노래한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홍대 앞이 아닌 다른

공연장에서도 공연한다는 말과는 약간 다른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시와는 조금 더 좋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도 노래하는 가수입니다. 글을 쓰고 있는 제가 ‘공정 무역의 날’이나 ‘캔들나이트’같은 행사, 그리고 ‘전쟁없는세상’의 행사에 함께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시와가 그러한 공간에서 노래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성폭력상담소에서 개최한 ‘성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에서는 말하기 참여자 분들의 가사에 곡을 붙이는 일을 하기도 했지요. 대학에 다니던 시절에 노래패 활동을 했다는 시와는 어떤 상황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야기하기도 하지만, 직접 행동으로 옮기기보다는 노래로 표현하려는 성향이 맞아떨어졌다고 털어놓은 적이 있습니다.⁵ 아마 그래서 지금도 시와는 의미있는 곳에서 노래하고 곡을 만드는 작업을 놓지 않고 있는 것이리라 생각합니다. 물론 노래만으로도 시와는 충분히 매력적인 가수이지만, 그녀의 행동이 그녀를 더욱 매력적으로 만드는 듯 합니다.

이런 시와의 트위터⁶ 프로필에는 ‘오래오래 노래하고 싶은 시와입니다!’ 라는 글이 적혀있습니다. 노래로 위로를 건네는 시와의 목소리가 없다면, 힘든 세상에서 기댈 수 있는 든든한 무언가가 사라지는 기분일 거라는 생각이 문득 듭니다. 앞으로

⁴ 3의 링크와 동일한 곳에서 인용

⁵ http://www.pressian.com/article/article.asp?article_num=60100423101936&Section=04

⁶ twitter.com/withsiwa

도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시와의 노래 안에서 쉴 수 있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저
도 그녀가 오래오래 노래하기를 바라고 응원하려고 합니다.

길상사에서

〈시와〉

이렇게
앉아있는 이 오후에도
나무사이로 보인 하늘
아름다운 것들을

가만히
그저 바라보기만 해도
느껴지는 무언가

행복이 아니라도

괜찮아

바람에 일렁이는 나뭇가지들
흘러가는 저 물 소리도
어찌나
두고 떠나기는
아쉬워

한 걸음
입 맞추고

돌아서네요

※ 열차 음악듣기와 자전거타기를 좋아하는, 그러나 생업으로
삼을 수 있는 좋아하는 것은 아직 못 찾아 헤메고 있는 20대.

차별금지법, 대체 언제/어떻게 써먹는 건가요?

타리 |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사무국, 진보신당 정책연구위원

차별금지법, 차별, 차별을 금지한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혁명적입니다.
법으로요. 억울한 일 당하면 심증팔구 재수 없다고 치고 넘어가는 게 상책인 사회,
협한 꼴 당했다고 고소하고 재판해봤자 나만 손해보는 사회, 가해자가 덩치 큰 놈
일수록 가망 없는 사회, 세상사는 게 뭐 돈 없고 뺨 없으면 그렇고 그런 거지 라고
체념하는 사회에서 그런 억울하고 차별받은 일을 법으로 금지한다니요!

차별금지법은 헌법에 명시된 ‘평등’을 구체적이고 포괄적으로 실현하기 위한 인
권기본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못 배웠다고, 못 생겼다고, 부모가 이
혼했다고, 비정규직이라고, 여성이라고, 장애인이라고, 피부색이 다르다고, 성
전환자라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맞아왔던 사람들의 절절하고 처절한 사연에 대해서
정말로 국가가, 법이 나서겠다는 겁니다. 네, 우리가 준비하고 있는 법의 목적은 바
로 “이 법은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차별을 예방하
고 금지하며 차별로 인한 피해를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헌법상의 평등권을 실
현하고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함을 목적으로 한다.”입니다.

근데 이게 어디서 갑자기 툭 튀어나온 걸까요? 참여정부 때부터 차별과 차별금지
법에 대한 얘기가 간간히 오가고, 2007년 정권 말기 때 실제로 법안이 국회에 제출
되기도 했지요. 그 이후에도 일하고자 하는 노인을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주장



이 제기되니까 ‘연령차별금지법’이 생겼고, 인종차별금지법과 학력차별금지법에 대한 얘기도 심심치 않게 나옵니다. 장애인이 정말 몇 년간 온 마음을 통해 투쟁한 결과 장애

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된 건 말할 것도 없구요.

제가 차별금지 법제화에 대해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장애인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연대했던 경험과, 2007년 참여정부가 누더기로 만든 차별금지법에 대한 반대운동을 하면서부터입니다. 물론 일군의 인권활동가들은 국가인권위원회가 설립될 때부터 인권기본법인 차별금지법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계속 지적해 왔지만요.

문제는 여전히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차별이 법으로 금지될 수 있다는 것, 사소한 것이라고 치부되어 왔던 것이 법으로 이야기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법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법이 만들어진 후에 제대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무엇이 차별인지, 무엇이 더 이상 용인되어서는 안되는지, 차별을 예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인식과 합의가 없다면 의미가 반감될 수밖에 없겠지요. 저는 이러한 사회적 합의를 위해서 정부가 가장 많은 책임과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과 홍보, 그리고 일정한 기준 이상의 차별행위가 일어났을 때 처벌을 하는 것도 정부의 몫이니까요. 하지만 이미 국제적인 인권 규범에 비추어 보면 당연히 제정되어 마땅한 차별금지법은 왜 맨날 글로벌 스탠더드와 국격을 말하는 대통령의 안중에 없는지 궁금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열심히 차별에 대해서 말할 겁니다. 그것이 모두의 인권을 위한 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몇가지 예를 들어보려고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적극적으로 차별과 폭력으로 인정하고 법적인 제재를 가하지 않았던 영역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차별에 대한 관점으로 읽으면 결코 다른 범죄보다 가볍다고 여기기

어려워질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교회에서 목사님이 설교 중에 “동성애는 죄를 짓는 것이다. 죄의 대가는 에이즈다. 절대 동성애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따라서 기독교인은 동성애를 해서는 안되며, 동성애를 하는 사람을 만나면 회개하고 그만두게 해야 한다”고 합시다. 신앙의 의미와 깊이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목사의 이러한 설교는 누군가의 신앙을 파괴할 뿐만 아니라 살아가는 의미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이 차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차별금지법에 의해 당신은 위법한 행위를 저질렀다고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이 계속해서 그런 내용으로 설교를 한다면 모욕감을 느낀 사람은 차별의 피해자로서 인권위원회 진정이나 소송을 할 수 있게 됩니다.

다른 예를 들어볼까요? 얼마전 강용석 (아직)국회의원은 국회의장배 토론대회를 마친 뒤 대학생들과의 저녁자리에서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래? 00여대 이상은 자존심 때문에 그렇게 못하더라’라고 하여 아나운서 비하와 성희롱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 발언으로 재판을 받았고 아나운서집단에 대한 집단적 모욕을 했다는 죄가 인정되었지요. 강용석 의원은 특정한 아나운서에게 이러한



성희롱 발언을 한 것은 아니지만 모든 아나운서를 싸잡아서 모욕했습니다. 집단적 모욕에 대한 죄가 인정된 것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해요. 우리사회는 아직도 죄로 인정될만한 폭력을 물리적인 것으로만 한정하는 인식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 사건은 참으로 기념비적입니다.

얼마전 성폭력 피해자가 재판장에서 증인신문을 받고, 재판부의 모욕적인 질문에 자살을 하고야만 사건이 있었습니다. 때로는 물리적인 (성)폭력보다 존재를 무시하고 차별하는 모욕적인 언사를 통해서 인간의 존엄성이 더욱 파괴되기도 합니다. 우리사회에서 어떤 사람이 가진 특성에 대한 비하와 혐오를 담아 언어적, 물리적 폭력을 가했을 때, 과연 우리는 그 폭력의 깊이와 강도를 제대로 가늠하고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서는 차별과 혐오를 담아 불이익을 주거나 폭력을 가했을 때 더욱 가중하여 처벌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런 문제는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져야 할 인권의 근간을 흔들고, 그 어떤 이유로도 용인될 수 없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법을 제정하기 위해 애쓰는 과정에서 그동안 차별로 인식되지 못했던 다양한 차별이 드러나고, 이에 대해서 사회적으로 토론하면서 반차별 감수성을 높여나갈 수 있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돈 없고 권력 없고 사회적으로 소외된 이들이 억울한 차별을 당했을 때 체념하지 않고 문제제기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정말로 악질적이고 지속적으로 집단적 차별과 혐오를 일삼는 이들에게 실질적인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이거 솔직히 정말 매력적이지 않나요?

차별금지법제정연대 홈페이지 <http://ad-act.net>



※ 타리 언제나 무언가 벗어나고파 '탈'입니다. 참고로 저는 사진의 패션왕을 닮았다고 해서 패션왕은 아닙니다. 다만 향해갈 뿐."

한국성폭력상담소 앙·코·르 발기인

이번 호 나눔터 <보고 싶은 얼굴> 코너에서는

지난 4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앙코르 발기인대회>의 무대에 올라 대표로 발언해주신 세 분의 앙코르 발기인을 만나고 왔습니다.

앙코르 발기인분들과 상담소의 특별한 인연,

그리고 스무살 생일을 맞은 상담소에게 전하는

애정어린 메시지를 들어 보실까요?

interviewer _ 보짱

정 경 자



황 재 호



조 윤 주





첫 번째 얼굴 | 정경자

정경자님은 현재 호주 시드니 UTS 대학의 Politics and Advocacy 학과 교수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경자님은 상담소 초기 총무로 활발한 활동을 하셨습니다. 정경자님은 1991년 한국성폭력상담소 최초 발기인이자,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앙코르 발기인으로 가입하신 진정한 앙코르 발기인이기도 합니다. 햇살이 따사로운 6월의 어느날, 정경자님의 사람 좋은 온화한 미소만큼 다정다감한 상담소와의 특별한 인연을 듣고 왔습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힘은
성폭력 생존자로부터 나옵니다”

Q 상담소랑 20년째 인연을 맺고 계신데, 처음에 어떻게 상담소를 만나게 되셨나요?

A 상담소는 저한테 한국에 들 때마다 찾게되는 친정같은 곳입니다. 상담소에서 91년부터 94년까지 4년동안 일했습니다. 당시에 피임광고에 대한 섹슈얼리티 분석으로 여성학과 석사 논문을 쓰고, 신문에 나타난 성폭력 기사를 분석하는 연구를 도와주는 조교로 일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최영애 선배가 성폭력상담소를 개소한다고 같이 하자고 제안을 했어요. 저는 그전에는 잡지사에서 일했고 운동의 경험이 많지는 않았는데, 같이 여성운동을 하자고 제안을 해서 너무 기뻐합니다. 상담소에서 일하는 동안 너무 너무 재미있었죠. 당시에는 어디든 노동운동이나 맑스주의적 분위기가 강했고 운동의 엄숙주의가 있었는데, 상담소는 그런 게 없어서 좋았습니다. 상담소에 있으면 내가 내 자신으로 존재할 수 있어서 좋았어요. 그리고 상근자와 상담원, 자원봉사자들이 서로 사이가 좋고 너무 잘해주었기 때문에, 같이 일하는 분위기가 좋았던 것 같아요.

Q 상담소 초창기 시절,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당시에는 상담 뿐만 아니라 연구, 출판, 미디어 홍보 등 다양한 분야의 활동을 했어요. 1달에 한번씩 연구보고서를 발간할 정도였으니까요. 워낙 성폭력에 대해서 연구가 많지 않다 보니, 우리가 상담통계를 분석해서 ‘아동성폭력에서 친족성폭력이 얼마다’하고 발표하면, 다들 그런가보다 했던 시절이었죠. 그 당시의 상담소는 미디어와 매우 친밀한 조직이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각종 신문사, 방송사 기자들이 상담소로 몰려와서 안 그래도 좁은데 발 디딜 틈이 없었어요. 그때는 상담소가 마치 기자들 대기실처럼 되어 버렸죠. 하도 자주 만나니까 나중에는 여성부 기자들하고는 상당히 친해졌습니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때는 상담소가 언론에 대한 영향력이 매우 강했던 것 같아요.

세상에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다는 것도 그때 알았습니다. 당시에 너무 돈이 없어서 사무집기를 거의 살 수가 없었거든요. 상담소 초기에 복사기며, 팩스며 이런 거 다 앞사무실에서 얻은 거예요. 마주보는 앞 사무실에서 이사를 갔나, 문을 닫았나 아무튼 사무실을 정리하면서 상담소가 좋은 일 한다며 복사기며 팩스며 다 주고 갔어요. 자원활동가 중에는 집에 어머니한테 말해서 냉장고를 얻어온 사람도 있었답니다.

Q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한 지 20년이나 되었는데요, 20년이나 활동할 수 있었던 힘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A 상담소가 개소한 지 20년이나 지났다니 믿기지 않네요. 정말 금방 세월이 흘러가버렸어요. 상담소가 상담을 하는 현장에 있다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현장에서 직접 피해생존자를 만나다 보니 자연스럽게 그들의 입을 통해서 운동의 목표를 만들게 되었죠. 워낙 가해자 처벌이 안된다고 하니 법을 만들어서 가해자를 처벌해야겠구나, 의료적 지원을 못 받고 고통받는 피해생존자가 많으니 의료서비스를 요구해야겠구나 그 과정에서 피해생존자와 함께 국가에 성폭력 관련 정책들을 제안하고 함께 만들어나갔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 이거야말로 상담소가 가지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여성주의 상담의 힘은 피해생존자로부터 나옵니다. 호주에서도 몇 개 안되는 여

성주의적 강간위기센터가 살아남은 이유는 피해생존자들 때문입니다. 호주는 제도화가 많이 진행되었고, 대부분의 상담소는 국가 지원을 받아서 원스톱센터처럼 병원 안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여성주의 상담소를 찾아오는 피해생존자들은 “여성주의 상담소를 찾아 갔더니 그 상담내용이 너무나 달랐고 마음에 들었다. 이제 나는 국가에서 운영하는 상담소를 가고 싶지 않다”고 합니다. 그것이 호주에서 여성주의 상담소를 버티게 하는 힘입니다.

여성주의 상담을 한다는 것은 단지 상담의 전문성이나 스킬을 키우는 문제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상담기법을 익히기 위해서는 대학원을 진학하거나 전문적인 훈련이 필요한데 현장에 있는 활동가들이 그럴 시간이 없죠. 누가 더 상담기법을 많이 알고 있나, 누가 더 전문적인 훈련을 많이 받았는가를 기준으로 한다면, 당연히 상담의 권위가 전문교육을 받은 박사나 연구자들에게 가거나, 사회복지기관이나 국가로 포섭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성주의 상담은 관점의 문제이지 기법의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초기에 제가 전화상담할 때는 내담자와 친구처럼 이야기하기도 하고 제가 알고 있는 여성학 책을 알려주기도 했어요. 여성주의 상담의 원칙은 정말 쉽고 간단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피해생존자의 말을 믿어주고 신뢰하는 것, 피해생존자에게 선택을 강요하지 않는 것, 피해생존자의 의사를 존중하고 피해생존자의 의사에 따라 사건을 처리하는 것입니다.

Q 스무살 생일을 맞은 상담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상담소는 한국과 같은 보수적인 사회에서 ‘성폭력’이라는 의제로 여성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담소뿐만 아니라 쉼터도 만들고, 연구 및 출판사업도 함께 하고 있죠. 이런 형태의 활동방식은 다른 나라에서도 매우 보기 힘든 모델입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상담소를 기반한 한국 여성운동의 모델을 제시했고, 지금도 여러 가지 의미에서 리딩그룹입니다. 상담소가 이후에도 계속해서 여성운동의 모델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상담소에서 예전처럼 많은 연구활동을 벌였으면 좋겠네요. 사실 학자들은 여성운동의 현장을 지켜보는 사람들이라서 깊이 알지는 못해요. 일부 다른 학자들은 호주의 여성운동이 아직도 건재하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단지 존재한

다고 해서 건재하다고는 할 수 없어요. 상담소에서 활동했던 경험이 있던 저는 폭발적인 여성운동의 힘을 보았고, 여성운동이 무엇을 변화시킬 수 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활동가들은 여전히 현장의 최전선에 있고 여성운동에 대해서 가장 잘 아는 사람들입니다. 물론 활동가들이 너무 바쁘니 혼자서 연구보고서를 다 작성할 수는 없겠지만 자문위원이나 주위 사람들을 적극 활용해서 많은 연구물을 만들었으면 합니다.



두 번째 얼굴 | 황재호

황재호님은 신한은행 상품개발부 과장으로 수신상품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황재호님은 1993년에 24시간 야간 상담을 하던 지킴이 2기로 활동하시면서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한동안 상담소와 연락이 끊어졌는데, 개소 20주년 홈커밍데이행사를 통해서 오랜만에 상담소를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황재호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양코르 발기인 모집인내를 보고 가장 먼저 가입해 주신 1호 양코르 발기인이시기도 합니다. 황재호님이 너무 바빠서 직접 찾아 뵙고 인터뷰를 하지는 못했지만, 바쁘신 와중에 시간을 내어 서면인터뷰를 보내주셨습니다.

“지킴이로 활동하던 시절은
제 젊은 날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Q 한국성폭력상담소와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A 제가 대학교 2학년이던 1993년 봄으로 기억합니다. 당시 지킴이 1기로 활동하던 정정기 선배 소개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처음 접하게 되었는데, 정정기 선배는 몇 명 안 되는 서울대학교 소비자동학과 남자 선배로 인간적으로 많은 귀감이 되는 분이었습니다. 나중에는 저와 상담소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하숙집 룸메이트로 지

내는 절친 선후배가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당시 상담소 지킴이 활동을 하고자 했을 때는 특별히 여성학이나 사회문제에 학문적 관심이 있어서는 아니었습니다. 단지 다양한 트렌드 변화와 사회문제에 관심이 있어 개인적으로 사회학 교양강의도 많이 들던 시절이었기에 '성폭력'이라는 생소한 단어가 저의 관심을 끌더군요. 돌이켜보면 제가 도움을 드리고자 자원한 활동이었지만 오히려 훌륭하시고 좋은 분들을 만나는 행운이었고, 많은 것을 얻고 배워가는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경험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Q 초기 지킴이로 활동하셨다고 들었는데 당시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대략 3년간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잊지 못할 소중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매우 많습니다. 주요 기억에 남는 활동으로는 '법정이 이런 곳이구나! 재판은 이렇게 받는구나!' 하고 알게 해준 서울대 조교 성희롱 사건 법정지원 활동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저로서는 그때가 처음으로 법정에 갔던 때였거든요. 당시 지킴이 자치활동 소모임인 법정지원팀에서 활동하면서, 녹취록을 작성하고 소송기일이 잡힐 날에는 법정 관람석 한 자리를 차지하고 여러 차례 재판진행을 지켜보았습니다. 현장 대질신문이 있던 날에는 기꺼이 학교까지 동행하여 피켓을 들고 힘을 실어 주기도 했지요. 재판진행 경과에 따라 때로는 분에 겨워 화가 나기도 했고, 사건의 진실이 명백히 밝혀져 피해자가 반드시 승소하길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당시 3천만원이라는 상징적인 손해배상과 승소라는 결과(3천만원 배상은 1심 결과임, 최종 3심에서는 5백만원 배상을 판결함)를 지켜볼 때는 그래도 사회 정의가 살아있고 진실은 통하게 마련이구나 하는 확신이 서더군요. 당시 피해자 변호를 담당하시던 박원순, 이종걸 변호사님 등 명망 있는 분들의 헌신의 결과라 할 수 있겠지만, 상담소 최영애 소장님을 비롯한 많은 상담원과 자원활동가에게는 매우 고무적이고 힘이 되는 최대의 이슈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밖에도 함께 자원활동을 하던 지킴이, 상담원, 위기센터 간사 선생님들과 소중한 추억이 많은데…… 먼저 '뽕데굴'이라는 스포츠 볼링 소모임 추억이 있습니다. 회원 수 예닐곱 명으로 단지 볼링을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모였고, 형편없는 실력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뽕데굴' 팀명을 새겨 회원전

용 티셔츠도 제작했었는데요. 이 티셔츠는 회원수의 두 배나 판매되는 히트상품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당시 절친 지킴이 동료였던 선규의 활약 덕분에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Q 한국성폭력상담소 앙코르 발기인으로 가입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 드립니다. 앙코르 발기인 가입동기에 대해서 말씀해주세요.

A 상담소 지킴이는 제가 원해서 지원한 활동이었으며, 한 달에 네 다섯 번 밤을 새는 수고스러움이 있었지만 그래도 기분 좋게 귀가할 수 있었습니다. 지킴이로 활동하던 지난 시절은 제가 살아오면서 가장 고뇌하던 대학생 신분의 4분의 3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상담소 지킴이 활동은 이런 힘겨운 시기에 오히려 저에게 많은 고민과 좌절의 시름을 잊게 만들고, 인간적인 성숙과 사람의 풋풋한 향기를 느끼게 해준 계기가 되었습니다.

상담소 개소 20주년을 맞아 홈커밍데이 이벤트로 소중한 추억을 되새겨준 것만으로도 저는 감사할 따름입니다. 더불어 앙코르 발기인의 기회까지 주신 것은 상담소가 그 동안 제게 베풀어준 은혜와 인연에 대한 작은 보답이라 생각했습니다.

Q 올해 한국성폭력상담소가 개소 20주년을 맞았습니다. 회원으로서 상담소가 어떤 활동을 해주기를 원하시나요? 상담소에 바라는 바가 있으시면 말씀해주세요.

A 상담소의 20년 역사는 일그러지고 차별적이던 성문화를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법률 제정과 정부정책 수립, 연구활동, 성폭력 피해자 지원활동을 꾸준히 수행해 온 실천의 역사입니다. 더불어, 대한민국에서 남녀평등과 건전한 성문화 정착을 주도했던 변화주도의 역사입니다. 지난 20년이 그러하듯 향후 20년도 이러한 초심을 잃지 않고 나날이 발전하길 기원합니다. 사회가 변화하면 의식과 문화도 변하게 마련이지만,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서도 당당히 사회 악에 굴하지 않고 건전한 성문화를 주도해 나가길 바랍니다. 더불어 남녀가 공존하는 아름다운 성문화를 만들어 갈 수 있도록 한발 먼저 국민에게 다가가는 범 사회적인 다양한 캠페인도 많이 구상해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얼굴 | 조윤주

조윤주님은 현재 PR 에이전시 A,E로 애플코리아 홍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조윤주님은 2008년에 경희-씨티은행 NGO인턴십으로 상담소에서 근무하면서 상담소와 인연을 맺게 되었습니다. 조윤주님은 회원 소모임인 여성소셜읽기모임에서 꾸준히 활동하고 있고, 3·8 여성의날, 베틀시장, 총회, 한해보내기 등 상담소 모든 행사에 빠지지 않고 꼭 참석해주시는 열혈회원이기도 합니다. 상담소는 카드 돌려막기처럼 무슨 일만 있으면 자기한테 연락한다면서 손사래를 치지만, 언제나 부르면 싫은 기색 없이 달려와주시는 조윤주님을 만났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여성주의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Q 상담소와 처음에 어떻게 인연을 맺게 되었는지를 이야기해 주세요.

A 2007년에 외국에 있다가 돌아와서 내년에 복학하는데 뭔가 의미있는 일을 해보고 싶었는데, 경희-씨티은행에서 NGO인턴십을 신청공고를 보고 이력서를 냈습니다. 당시에 NGO단체마다 2명씩 일하게 되었는데, 상담소에서는 저랑 김동현이라는 친구가 같이 일하게 됐어요. 상담소 업무도 도와드리고, 행사나 집회 있으면 같이 나가고, 상담소 관련 자료를 읽거나 상근활동가들과 함께 이야기도 하고, 당시에 동현이랑 둘이서 참 재미있게 일했어요. 저는 NGO인턴십 하기 전에는 여성운동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는데, 상담소 와서 새롭게 여러 가지를 배울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인턴십 마칠 때쯤 동현이가 너무 재밌게 일했으니까 이런 마음을 전하기 위해 상근활동가들에 대한 책을 만들면 어떨까라고 제안해서 같이 만들었어요. 활동가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도 찍고, 피곤해서 지쳐서 자는 것도 몰래 찍고, 전체회의 때

사람들 표정 이상하게 나오는 것도 찍고, 각 활동가의 성격이나 특징에 대해서 재밌는 글도 써서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당시 동현이가 숙명여대 다녔는데 둘이서 같이 숙대 도서관에 가서 원고를 썼어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왜 그렇게까지 했나 모르겠어요. (웃음) 나중에 인쇄소에 제본을 맡겨서 진짜 책처럼 만들어서 활동가 한명 한명 다 드렸는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더라구요. 지금 생각해보면 좀 창피하기도 하지만, 그때는 재미있었거든요. 아마 둘이라서 했던 거지 혼자라면 힘들었을 것 같아요.

Q 상담소랑 지속적으로 인연을 이어가고 있는데, 이렇게 오랫동안 상담소를 만나게 하는 힘은 뭡까요?

A 음, 힘은…… 제가 상담소 오기 전까지는 명확하게 여성주의 이론에 대해서 아는 것은 아니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여성주의에 관심이 많았던 것 같아요. 사실 상담소 오기 전에는 여성주의에 대해서는 이론적으로는 전혀 몰랐고, 관련활동에 참여한 적도 없었거든요. 그렇지만 뭔가 모르게 세상에 대해서 비판적이고 짜증나는 일이 많았는데, 나중에 제가 그랬던 것이 다 여성주의나 여성운동 이슈들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이게 아마 지속적으로 상담소 문을 두드리고 찾게 된 계기라고 생각되네요.

또한 한편으로는 오매랑 두나 등 상담소 활동가들을 만났던 것도 상담소와의 인연을 이어주게 한 힘이 된 것 같아요. 제가 오매, 두나, 마도와 함께 상담소 회원소 모임인 여성소셜읽기모임을 함께 하고 있거든요. 일단은 여성소셜읽기모임이 한달에 한 번은 모이니까, 꾸준히 모임에 참여한 것도 상담소와의 인연을 계속 이어준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여성소셜읽기모임에서 사람들하고 같이 책을 읽는 것이 매우 새롭고 재밌는 경험이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책을 혼자만 읽는 사람이었는데 다른 사람들과 함께 책을 읽으니까 똑같은 책을 읽고도 다양한 생각을 가진다는 게 참 재밌더라구요. 나는 이 책이 너무 싫었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좋았다고 하고, 나는 이 캐릭터가 너무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싫다고 하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책을 다르게 읽을 수 있어서 배우는 점이 많습니다.

Q 한국성폭력상담소 앙코르 발기인 대표로 무대에 섰는데, 나름 경쟁이 치열했던 거 아시죠? 앙코르 발기인을 가입하신 소감을 한 말씀 해주신다면?

A 마도가 저한테 앙코르발기인 가입 권유를 했는데, 제가 그랬어요. 제가 지금도 상담소 회원 프라이드가 엄청난데, 앙코르발기인 가입까지 하면 상담소 회원 프라이드가 하늘을 찌를 것 같지 않냐고요. 그랬더니 마도가 괜찮다고 다 받아줄 수 있다고 하더라구요. (웃음)

이건 농담이구요. 여성운동을 한다는 것이 쉬운 게 아닌데, 상담소가 20년이나 꾸준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직장인이어서 시간을 많이 낼 수는 없기 때문에 금전적인 후원을 하는 것도 나름대로는 상담소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제가 올해 27살인데 20년 뒤면 47살이 됩니다. 제가 상담소를 후원하는 것이 상담소가 앞으로 20년을 더 열심히 달려갈 수 있는 동력이 되어서, 47살이 되었을 때에도 상담소가 한국의 대표 여성운동단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 전에 김제동씨가 책을 냈는데, 인세 전액을 아름다운재단과 대안학교에 기부한다고 했거든요. 근데 김제동씨가 너무 솔직하더라구요. 김제동씨가 “솔직하게 이렇게 책이 잘 팔려서 인세가 많이 들어올 줄 몰랐다. 알았다면 다시 생각해봤을 텐데 사실 좀 아깝지만 기부하겠다”라고 했다는 이야기를 듣고 재밌었어요. 보통 사람들은 기부할 때 너무 고고하게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라고 하는데, 저는 오히려 이런 인터뷰가 너무 인간적이라는 생각이 들고 동감이 많이 가더라구요. 발기인 출자금 20만원을 선뜻 낸다는 게 사실 생각만큼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저한테 20만원은 사고 싶은 것을 사고, 먹고 싶은 것을 먹고, 쓸 데가 너무나 많은 돈이지만 상담소에 기부하는 거죠. 이걸 통해서 상담소가 더욱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요. 저는 한 번에 다 내지는 못하고, 매달 5만원씩 내고 있는데 참 보람차요. 돈을 더 많이 벌면 상담소에 더 많이 기부하겠습니다 (웃음).

Q 스무살 생일을 맞은 상담소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A 회원들끼리 만날 수 있는 자리를 많이 만들면 좋겠습니다. 총회같은 공식행사때만나는 것 말고도 같이 모여서 뭘 해보면 재밌을 것 같아요. 같이 등산을 한다던지, 같이 스포츠를 한다던지, 아니면 같이 모여서 세미나를 한다던지. 그러면 좀 더 상담소가 친근하게 다가올 것 같아요.

또 한가지는 상담소가 언론에 더 많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방송 인터뷰도 많이 하고, 신문기사도 많이 실렸으면 좋겠어요. 아무래도 신문에 실리거나 하면 사람들이 다 많이 알게 되고, 상담소 활동을 많이 알릴 수 있잖아요. 제가 홍보 담당이라서 아침마다 각종 신문을 다 읽고 모니터하는데, 상담소 기사가 실리면 너무 반가워서 스크랩합니다. 그런데 상담소는 맨날 한겨레나 경향에만 기사나 실려서 좀 아쉬워요. 우리 상담소랑 소위 보수신문이랑 인터뷰해가지고, 거기에 한 번 나오면 어떨까요? 조중동이나 매경, 한경 그런 신문에 상담소 기사가 실리면 좀 신선했 것 같아요. 그 신문 보는 사람들이 좀 보수적이잖아요. 그런 사람들에게 새로운 메시지를 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좀 어렵겠죠. (웃음)

이번호 나눔터 <그때 그 사람>에서는
 24시간 성폭력 위기상담을 하던 지킴이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성폭력은 발생 직후에 초기대응이 매우 중요하며,
 사건 발생 직후에 즉각적으로 증거채취를 하고
 고소 등 법적 절차를 지원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낮시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과 달리
 밤 시간에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은 의료적·법적 지원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한국성폭력상담소는
 24시간 성폭력 상담을 할 수 있는 성폭력위기센터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1993년 성폭력 위기센터를 개소합니다.
 성폭력 위기센터는 주간에는 상담원이 상담을 하고,
 야간에는 야간 당직자와 지킴이라는 자원활동가들이 함께 상담을 했습니다.
 지킴이들은 주로 대학생 자원봉사자로 구성되었는데
 야간에 근무하면서 성폭력생존자와 병원·경찰을 연계하거나,
 면접상담 전까지 1차적인 전화상담을 담당하였습니다.
 1993년 성폭력 위기센터가 개소하여 2000년 해소하기까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많은 훌륭한 지킴이들을 배출하였습니다.
 지킴이제도는 지금은 상담소 역사의 뒷안길로 사라져서
 초기 활동하신 몇몇 회원들의 기억 속에만 남아있는데,
 1기 지킴이였던 정정기 회원을 모시고
 그 당시 지킴이들의 활약상을 들어보고자 합니다.



Q 간단한 자기소개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A 서울대 소비자동학과에서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논문을 쓰고 있습니다. 다른 일은 『임원경제지』라는 지금으로 말하면 조선시대 백과사전의 요리부분을 한글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Q 당시 어떻게 지킴이 활동을 시작하게 되셨나요?

A 제 고향이 포항인데 남초현상이 심하고, 해병대도 주둔하고, 보수적인 분위기가 강한 곳입니다. 93년에 군대를 마치고 복학했는데, 학교에 지킴이를 모집한다는 벽보가 붙어있더라구요. 그게 왜 그렇게 인상깊게 들어왔는지 생각해 보면, 성폭력이 만연한 동네에서 살다보니 이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상황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남자가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 지킴이를 여자뿐만 아니라 남자도 모집한다는 것을 보고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지킴이를 지원하러 왔는데, 면접을 보더라구요. 다른 지원자들도 많이 와있어서 면접 볼 때 많이 떨렸습니다. 면접 때도 최영애 선생님이 지킴이를 왜 지원했냐고 물어보셔서 같은 대답을 드렸던 기억이 납니다. 1994년부터 1998년까지 4년 정도 지킴이로 활동했습니다.

Q 지킴이로 야간 근무하실 때 기억나는 에피소드가 있으신가요?

A 사실 제가 밤새는 것은 힘들어해서, 지킴이로 근무할 때 그게 제일 힘들었어요. 어떤 때는 밤을 꼬박 샐는데도 전화 한 통 못 받고 돌아갈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면 힘이 많이 빠지는데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해야 하는지 아닌지 복잡한 심경이었습니다. 통계적으로 볼 때 성폭력이 발생하지 않는 밤이 없는데, 전화가 걸려오지 않으니깐요.

지금 기억나는 전화는 중학생으로 보이는 애들이 장난전화를 해서 분노에 떨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감당이 안되니까 옆사람에게 전화기를 넘기기도 했어요. 그래도 그때는 그런 장난전화라도 받는 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했었어요. 그런 애들도 상담이나 교육이 필요하니까요.

Q 지킴이로 교육받은 내용 중에서 가장 놀라웠던 내용이 있나요?

A 그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나는 게 성폭력이 낮은 사람에 의해 많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아는 사람에 의해서 주로 발생한다는 내용이 놀라웠던 것 같아요. 그리고 성폭력 피해자들 중에 어린이가 많다는 것도 놀라웠구요. 당시에 사회적 이슈들이 많이 있어서 같이 시위도 나가고 법정참관도 했었는데, 의

붓아버지에 의한 성폭력 때문에 남자친구가 가해자인 의붓아버지를 살해했던 사건이 기억에 많이 납니다.

Q 지킴이로 활동한 것은 인생에서 어떤 의미인가요?

A 지킴이로 활동했기 때문에 성폭력문제를 보다 제대로 볼 수 있게 되었죠. 그 전에는 성폭력이 만연한 지역문화 때문에 막연하게 문제의식만을 가지고 있었다면, 상담소에서 지킴이로 활동하면서 성폭력이 사회적인 문제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만큼 중요한 것은 지킴이를 활동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만난 것입니다. 물론 대학도 넓지만, 출신대학을 벗어나서 서울 시내 전체에서 모인 대학생을 만나서 공부하고 이야기하는 과정 자체로도 매우 의미있었습니다. 제가 지킴이로 활동한 것을 알고 지금도 주위에서 성폭력사건이 발생하면 가끔 도움을 청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럴 때도 많은 보람을 느낍니다.

지킴이 경험담

이 경험담은 지킴이 활동일지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1994년 4월4일

상담원 선생님께서 저에게만 해주신 말입니다.
참 좋은 말입니다.
모두 기억합니다.
"성교육은 성지식 교육이 아니다. 인격 교육이다"

<1기 양성철>

1994년 7월15일

끊긴 전화 한통 외에 아무전화도 없었지만 상담일지를 묵고, 새로운 지킴이 두분을 만나고, 같은 지킴이라는 이유만으로 '성폭력'에 관한 얘기를 거리낌 없이 솔직히 말하고 싶은대로 얘기하고..... 이것만으로 오늘 (어제부터) 근무의 보람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결코 허무한 날은 아니겠지요. 89년 계산으로 2분에 1건씩 일어난다는 강간, 그 피해자들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우리는 밤을 보냈어요. 사람들이 입에 올리기도 꺼려하는 이 사회의 아픔을 위해 보낸 밤은, 우리 인생에서 빛나게 남을 겁니다.

<1기 조유경>



{ 남자고등학교에서 반 아이들이 한 남학생의 가슴을 자꾸 만집니다. 이것도 성폭력인가요?

Q 저는 남자고등학교 상담교사입니다. 한 남학생이 자꾸 반아이들이 자신의 가슴을 만진다며 어떻게 해야할지 상담을 하러 왔습니다. 반 친구들이 여자처럼 가슴이 나왔다며 오며가며 한번씩 가슴을 만져본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남학생은 덩치가 크고 살이 많아서, 한 눈에 보기에도 남들보다 가슴 부분이 나와 보였습니다. 남자애들끼리 장난치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른이 나서서 너무 심하게 야단칠 수도 없고, 그렇지만 당사자인 남학생은 너무 괴로워합니다. 이런 것도 성폭력인가요? (From 홍당무쌤)

A 안녕하세요, 홍당무쌤. 보내주신 글을 잘 읽었습니다. 사춘기를 지나 성에 대해 관심이 높아지는 아이들은 언제나 어른들의 예상을 벗어나는 다양한 성적 행위와 성적 실천들을 벌입니다. 아이들의 행동에 대해 적절하게 개입하고 상담한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인 것 같습니다.

사춘기에 들어와서 가슴이 나오고 털이 생기는 2차 성장기에 들어가면, 아이들은 자신의 몸에 대한 관심이 높아집니다. 남자아이들은 서로의 성기를 크기를 비교해보거나, 오줌 멀리싸기 같은 놀이를 하면서 자신의 남성성을 과시합니다. 이는 비단 남자아이들만의 문제는 아니어서, 여자아이들도 친구들과 가슴의 크기를 비교하거나 서로 만져보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그러한 성적 놀이를 통해서 성에 대해서 배워나가기 때문에, 아이들의 성적 놀이가 모두가 성폭력이라고 재단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홍당무쌤이 아이들 간의 놀이에 어른이 나서서 야단치는 것이 문제가 되지 않을까 걱정하시는 것이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러나 말씀해주신 사례에서 제가 우려스러운 것은, 이번 사건이 아이와 아이 사이의 단순한 성적 놀이를 넘어서서 한 아이를 두고 반 학우 전체가 놀려대는 양상으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개인과 개인 사이의 놀이에서는 서로가 '싫다'는 의사를 표현할 수도 있고, 싸울 수도 있고, 적당한 선에서 타협이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

다. 그러나 개인과 집단 사이의 관계에서는 서로 간의 대등한 놀이라기보다는 개인이 일방적으로 집단의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당할 확률이 높아집니다. 이때는 집단의 구성원들에게는 여전히 '놀이'일 수 있지만, 개인에게는 이미 '폭력'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반 아이들이 하고 있는 놀이의 내용도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여자처럼 가슴이 나왔다며 만져보는 것은 이 남학생을 '여자처럼 취급'함으로써 놀리며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그 남학생이 또래 아이들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남성다움'의 기준에 도달하지 못하기 때문에 - '충분히 남자답지 못하고 계집애처럼 보이기 때문에' -, 암묵적인 놀림과 비난, 배타적 시선을 보내는 것입니다. 군대나 경찰, 학교 등의 남성집단에서 소위 '남성다움'을 갖추지 못한 남성에 대해 다른 동료들은 따돌림, 구타, 성폭력 등의 다양한 방식으로 그를 집단에서 배제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도 반 아이들은 놀림당하는 아이가 똥똥해서 '남성다운 몸'을 가지지 못했다고 암묵적으로 비난할 뿐만 아니라, 그를 여자 취급하는 것을 통해 '남성다워질 것'을 은근히 강요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또래집단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남성다움'의 강요는 개인에게 매우 폭력적이라는 점에서 문제적입니다. 뿐만 아니라 또래집단에서 공유하고 있는 '남성다움'의 내용이라는 것은 종종 '남자다운 남자는 여성을 만족시키기 위해 성기가 커야 한다'거나, '남성의 성욕은 통제할 수 없으며 여성은 은근히 강간을 즐긴다' 같은 왜곡된 성 지식을 전달한다는 점에서도 문제적입니다. '남성/여성'을 구분짓고 왜곡된 남성성을 강요하는 것은 성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할 뿐만 아니라, 성을 둘러싼 다양한 관계맺기를 어렵게 만듭니다.

따라서 이 경우는 단순히 아이들의 성적 놀이로만 볼 것이 아니라, 반 아이들의 행위가 중단될 수 있도록 홍당무쌤의 개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반 아이들에게 느닷없이 '이건 성폭력이야'라고 말한다면 거부감을 가질 수도 있으니, 이게 왜 문제적인 행동인지를 반 아이들과 같이 이야기해보는 시간이 있었으면 합니다. '네가 그 친구 입장이라면 어떨 것 같니? 누가 네 가슴을 자꾸 만지면서 여자 가슴이라고 놀리면 네 기분은 어떨 것 같애?'라고 물어보는 것으로 이야기를 시작하면 어떨까요? (From 보쌤)

안아운사 수련생의 성희롱요괴 퇴치기



정치인들은
개념을 다 버릴 생각을 해야 한데,

그래도 정치인 하실 수 있겠어요?

[Dialogue]

Rep. Kang Yong-seok _ You know, to become anchorwomen, you basically have to give up everything. Are you willing to do so?

female college student _ I heard politicians got to have no prudence whatsoever. Are you still going to be one? Well, I think you just proved yourself to be the greatest politici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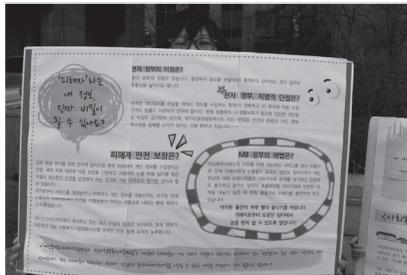
[대 화]

강용석 의원 _ 아나운서는 다 줄 생각을 해야 하는데, 그래도 아나운서 할 수 있겠어?

여대생 _ 정치인들은 개념을 다 버릴 생각을 해야 한데, 그래도 정치인 하실 수 있겠어요? 이렇게 쉽게 개념을 버리시는 걸 보니, 의원님은 정치인이 천성이신 것 같네요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었던 성폭력상황을 재치있게 재구성해주시거나 일상 속 성폭력 상황에서 멋지게 대응했던 경험을 보내주시면, 유쾌통쾌한 영어 지문으로 만들어드립니다! 나눔터 독자 여러분의 많은 참여 기다릴게요. (e-mail: ksvrc@sisters.or.kr)

*이번 호는 보짱과 자원활동가 정예라 님이 지문을 영어로 번역해 주셨습니다.



1.6 여성폭력근절을 위한 올바른 피해자 지원 정책을 촉구하는 기자회견



1.7 제9회 미래를 이끌어갈 여성 지도자상 시상식 (수상: 이윤상 소장)

1.26 제20차 정기총회

2.9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제956차 수요 시위



2.21 전국성폭력상담소및피해자보호시설협의회 총회 및 성폭력 수사 재판 시민감시단 디딤돌 결립식 수상식

3.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제27회 한국여성대회 기념식

3.8 3.8 여성대회 기념 플래시몹 "Happy Women's Day-그녀에게 빵과 장미를!" '여성폭력피해자지원단체 전자정부대 대응모임' 기자회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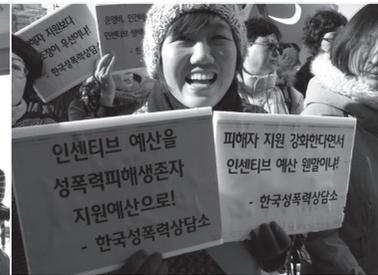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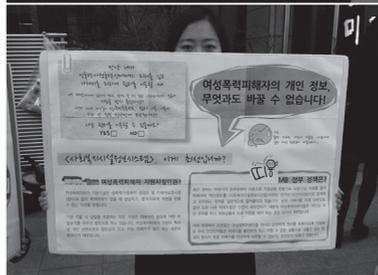
3.9 여성폭력피해자 지원 예산 정책의 문제점 기자회견 (발제: 송미현 원장)

4.5 균형법 제92조 합헌판결에 대한 군인권 네트워크 기자회견



4.13 개소 20주년 기념 홈커밍데이 (당신과 함께 만든 뜨거운 20년)

4.21~23 상권활동가 MT



4.26 아하 청소년성문화센터 10주년 기념 좌담회 "청소년과 함께 하는 성문화 운동의 오늘과 내일"

4.27 서울여성가족재단 여성폭력 피해여성의 건강안정망 구축을 위한 정책개선 방안 착수 자문회의

4.28~30 2011 여성회의 "여성운동 새로운 전환의 모색"

5.4 성폭력 피해아동 법률조력인 제도 입법 공청회

5.7~7.30 26기 성폭력전문상담원교육

5.12 만5세 저소득층 및 공공형 자율형어린이집 시범사업 구단 기자회견

5.14 2011 월드밸리댄스데이 자선 행사

5.30 성희롱 국회의원 퇴출! 강용석 의원 제명 촉구! 시민사회·청년·여성단체 기자회견

6.9 '지금 당장' 반값등록금 촉구 여성행동 기자회견 6.14 인터넷 플래카드 라운드 테이블 (인터넷 광고가 가야할 길) (토론: 이윤상 소장)

6.28 경산삼성병원 노조 간부에 대한 용역업체 폭력 관련 기자회견 7.18~7.22 사법연수원생 법률상담봉사연수





2011년 신간도서 발간

『성폭력 뒤집기: 한국성폭력상담소 20년 회고와 전망』

2011년 4월 13일 발간 | 15,000원 | 이매진 출판사

『보통의 경험: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DIY 가이드』

2011년 4월 13일 발간 | 12,000원 | 이매진 출판사

『준비된 부모를 위한 성교육 Q&A: 거침없는 아이 난감한 어른』

2011년 4월 27일 발간 | 10,000원 | 문학동네



작은 말하기

3/30, 4/27, 5/25, 6/29, 7/27

오후 6시30분 합정역 부근 카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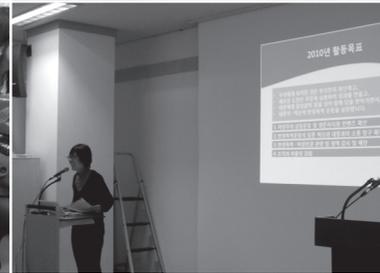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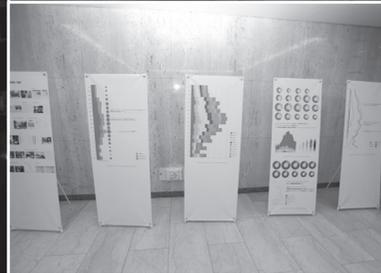
여성연예인 인권지원 서포터즈

3.8故 장자연씨 사건 재수사를 촉구하는 여성 단체 기자회견

3.17故 장자연씨 사건의 진실규명을 촉구하는 퍼포먼스

3.22 긴급토론회 - '장자연 사건'과 언론보도

6.8故장자연 시민법정극 (분노의 목소리)



차별금지법제정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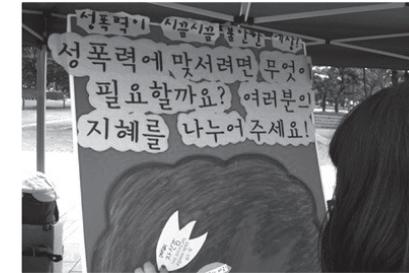
1.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출범 기자회견 (차별금지법 제정 모두를 위한 평등) 1.1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캠페인 "NEVER HIDE" @LGBT 인권포럼 1.27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법무부 차별금지법 제정 직유기 규탄) 기자회견 2.1 차별금지법제정연대 명절 캠페인 (가는 곳은 달라도 차별금지법으로 통해요)

3.5 차별금지법제정연대 캠페인 @ 전국여성대회 5.27 퀴어문화축제 차별금지법제정연대 5월 캠페인

5.27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금양물류 성희롱 피해자 부당하고 복직투쟁

5.31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사내하청 성희롱 및 부당하고 피해 비정규직 여성노동자 집회의 자유 쟁취를 위한 농성지지 기자회견

6.20 현대차 하청업체 금양물류 부당하고 피해자 촛불시위 참석 7.11 현대자동차 본사 앞 정기 1인 시위 7.12 전국 동시다발 1인 시위 7.21 상경투쟁 50일 기념 촛불문화제 7.25 현대자동차 본사 앞 정기 1인 시위



2011년 4월 13일,
한국성폭력상담소 개소 20주년
홈커밍데이 <당신과 함께한 뜨거운 20년>.
폭염과 장맛비가 기승을 부리는 여름이 되었음에도
여전히 나는 저 문장을 어렵지 않게 읊을 수 있다.
그만큼 실무자들, 그리고 상담소가
입에 침이 마르도록 이야기하고 다녔다는 소리고,
그것은 즉 준비도 열심히 했다는 말이 되겠다.
“<TV는 사랑을 싣고> 같은 걸 해보면 어때?”
상담소의 회원, 그리운 이들과 함께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기획하던 중 농담반 진담반으로 건넨 말이었다.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되면
엄청 신나고 감동적이지 않을까?

20주년
홈커밍데이
감동의
《상담소는 사랑을 싣고》
제작비
화

그것은 마치 한 편의 드라마처럼!

마도 | 본 상담소 온라인사업팀

그리운 사람들, 만나고 싶지 아니한가!

상근활동을 시작하기 전, 상담소 후원공연을 위한 기획단으로 활동한 적이 있다. 공연 좌석의 배정을 위해 그룹별로 세심하게 나뉜 명단을 보며 여기는 참 중요한 사람도 많고 고마운 사람도 많은 곳이라고 생각했던 기억이 난다. 게다가 티켓은 (당시의 나로서는) 불티나게 팔려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회의가 있다며 지하 모임터로 드나드는 사람들도 많았다. 그해 처음 간 한해보내기에서의 모습은 또 어찌나 따뜻했던지. 별 것 아닌 퀴즈에, 실수 투성이 회원 공연에 열광하며 호응하던 회원들. 이런 게 한국성폭력상담소의 힘이라는 걸 처음으로 실감했다. 정치 없이 방황하던 나로서는 간만의 훈훈함이라 눈물이 절끔 났다면 과장이려나. 어쨌든 이런 기운에 힘입어 회원가입을 했고, 상근활동을 지원했다.

그래서, 상담소의 회원들과 ‘그때 그 사람’들은 항상 감사하고 궁금한 존재다. 20년 역사를 함께 써나간 분들이라는 것도 으레 하는 말이 아니라 진심이다. 상담소와 한 번 인연을 맺은 모두가 그렇다. 아는 분이던 그렇지 않던 간에 만나면 너무 반가울 것 같았다. <상담소는 사랑을 싣고>는 그런 마음으로 기획되었다.

<상담소는 사랑을 싣고>니까, 맨 땅에 헤딩하는 게 제맛.

활동가들이 20년의 인맥과 연락처를 모두 꿰고 있을 리는 만무할 터. 천 명이 넘는 회원 분들에게 보고 싶은 분을 찾아드린다는 웹홍보물을 뿌리는 것이 시작이었다. 역시나 의뢰가 쇄도……할 리가 없었다. 기꺼이 의뢰해주신 건들은 상담소에서 바로 연락을 드릴 수 있는 분들에 대한 것이었는데, <TV는 사랑을 싣고>의 묘미는 ‘맨 땅에 헤딩하기’ 아닌가. 물어물어 찾아가는 것이 코너의 핵심인지라 따로 연결을 드렸다. 좀 더 어려워야 재미가 있으니까. (의뢰인 분들께서는 이 자리를 빌려 진심

으로 감사를 전한다)

아무리 그래도 말이 씨가 되어 진짜로 콕콕 헤딩하게 될 줄은 몰랐다. 선배 활동가 분들께 보고 싶지만 '연락 안 되는' 분들이 계시냐고 여쭙보면 있다, 있으시단다. 상담소 개소 당시 도움을 주셨던 분, 지킴이 나눔이 상담원 같은 자원 활동을 하셨던 분 등 많은 이름들이 쏟아져 나왔다. 찾을 수 있는 분이 이렇게나 많다니! 여기까진 쾌재를 외쳤다. 이제 찾을 수 있어!헛된 기대였다. 전화를 돌려 '님을 아시냐'면 대개 '안다'는 대답이 돌아왔지만 '요즘 연락이 되시냐'는 질문에는 다들 아니라고 하셨다. 살살 검색하려던 인터넷은 온갖 단서를 집어넣어 닉네임 대로 클릭질하는 수준이 되었고, 모 사이트에서는 같은 이름을 가진 비슷한 연령대의 이용자들에게 단체쪽지를 보내기도 했다. 그래서 만났냐고? 아니, 대부분이 쪽지를 확인조차 하지 않았다. 감동의 드라마가 그렇게 쉽게 나오는 게 아니었다. 두 분, 딱 두 분만 찾을 수 있으면 되는데.

“○○님이 맞으신가요?!”

이런 저런 과정 끝에 90년대 초반 활동하시며 도움을 주신 윤장순님과 상담자원활동가이셨던 강영순님을 찾을 수 있었다. 특히 인터넷의 도움을 받기도 했는데, 역시 신상도 털리는 무서운 세상.....이러기보다는 현재 하고 계신 활동이 바로 검색된 덕분이었다. 워낙 오랜만이라 냉랭한 반응이 올까 걱정도 했지만 모두 반가워해주시며 당시의 추억을 전해주셨다. 자원활동가 시절의 나였더라도 이렇게 반가웠겠지.

공명 토리 활동가의 능청스러운 리포터 연기와 함께 “○○님이 맞으신가요?!”까지를 카메라로 담으면서 두 분을 찾아뵈었다. 마주 앉아 차를 마시며 정겨운 인사를 나누다보니 오랜 시간 좋은 추억들을 잊지 않고 간직하고 계신 것을 알았다. 새삼 우리 상담소가 참 많은 분께 감사해야 한다는 마음이 들었던 걸 보니, 나도 참 상근활동가가 됐다.

이렇게 촬영까지 마친 것이 행사 전날이다. 어쩌겠는가? 집에서 밤샘 작업을 했



다. 푹푹딱딱 영상을 만들고 기절할 것이 아마 해가 뜨고도 한참일 거다. 쪽잠을 자고 헐레벌떡 행사장으로 달려갔다.

하이-퀄리티를 추구한 완벽 상봉의 무대

대망의 홈커밍데이. <상담소는 사랑을 신고> 시간이 돌아왔다. 자칭 '차도남(차가운 도시의 영양실조남)' 자원활동가 공작님이 능력을 발휘해 만든, 기존 프로그램과 똑같은(!) 로고가 스크린을 가득 메웠다. 하이-퀄리티다. 의뢰인이 등장해 사연을 이야기하고, 방문 과정이 담긴 영상이 흐르고, 대망의 '보고 싶은 얼굴'의 등장! 빠라라~빠라~ 이 순간 모두의 머리를 가득 메우는 바로 그 음악이 행사장에 울려 퍼졌다. 다시 한 번 말하지만, 하이-퀄리티다. 긴장감을 주기위해(!) 잠시의 시간 여유를 두고 행사장 뒤에서 뛰어나오시는 강영순님. 의뢰인 어린님과 와락 껴안으셨다. 무대에서 말씀을 나누시는 두 분의 눈에는 이내 눈물이 그렁그렁 맺혔다. 그때, 어린님이 말했다. "사실, 아까 밥 먹는 데서 만났는데도 눈물이 나네요" 좌중폭소. 사회자도 뒤집어진, 리얼리티 살아있는 생방송의 묘미랄까.

<상담소는 사랑을 신고>의 기획부터 연출까지는 이렇게 끝났다. 이제 와서 말하지만 홈커밍데이의 하이라이트 아니었는가? 잘난 척을 해본다. 사실, 홈커밍데이를 준비하는 모든 과정이 좌중우돌이었고 집에 가고 싶다며 울부짖던 밤도 많았지만 생각해 보면 이렇게까지 사심(?) 가득해서 매달린 활동도 드물지 않다. 첫째도 사람, 둘째도 사람인데 그 중요한 사람들에게 특별한 추억으로 남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이 글을 읽고 계신 회원님, 상담소의 활동을 함께하고 지켜봐주시는 분들은 지금, 그리고 앞으로 상담소를 어떤 곳으로 기억하게 될까. 모든 만남이 소중하고 조심스러워 진다. 20년 간 상담소와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참, 이런 저런 이유로 사장된 재밌는 기획들도 있는데, 한해보내기 같은 행사를 통해서라도 언젠가 꼭 선보이고 싶다. 즐겁자고 맘 먹으면 더 재밌게 놀 수 있다. 상담소에도 이런 기운들이 더 많이 필요하겠지? 여러분께서 응원을 보내주시면 더 신나게 해볼게요. 퀄리티는, 때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마도 | 본 상담소 온라인사업팀 도마 위에 오른 것을 뒤집겠다며 호기롭게 지었으나 지금은 그냥 '도마도'의 마도. 말캉하게 구르며 재밌는 것을 찾아 헤매는 중.

친애하는 D에게

나랑 | 본 상담소 부설 심터 열린터 활동가

D야. 끝도 없이 내리는 비에 이 세상 가난한 삶들이 얽려되는 날이다. 요즘 들어 부쩍 우울해 보이는 너와 긴 얘기를 나누고 싶었는데, 하필 오늘 너는 열린터 다른 친구와 싸우고 펑펑 울더니 방에 틀어박혀 나오질 않는구나. 직장일과 수능 공부를 병행하기 시작한 지 어언 두 달, 생각했던 것만큼 어느 하나 쉽지가 않고 몸도 마음도 많이 힘들지?

3개월 전, 우리가 처음 만난 날이 생각난다. 네 방에 들어가니 너는 바이올린으로 여인의 향기 OST를 멋지게 연주해 주었지. 서툰 솜씨였지만, 한 눈에 네가 재능 많은 친구라는 걸 알 수 있었다. 사실 그때 나는 무척 긴장하고 있었는데 혹시 느껴졌니? 후후~ “열린터 야간활동가는 사회복지사인지 활동가인지, 늘 정체성 갈등이 끊이지 않는 외로운 자리이고, 그래서 열린터 숙직방 창문이 더 커보였다”는 전직 활동가의 말에 사실 자신감보다는 두려움을 더 크게 안고 시작한 일이었지. 얼마나 확신이 없었으면 이력서 내기 전에 난생 처음으로 사주팔자까지 봤다니까……. 같이 사는 친구에게 ‘이 일의 좋은 점 리스트’를 적어 건네며, 내가 이 일을 그만두고 싶어 할 때 그 리스트를 보여 달라고 신신당부를 하고 나선 첫 출근 날.

D야. 우리는 그렇게 만나게 되었다. 그 즈음 너는 열린터라는 공동체의 규칙에서 자유로워지려했고, 네가 압박으로 느끼는 말이나 행동을 대할 때마다 가해자인 아빠가 통제하려는 것 같다며 불편해했지. 활동가들은 그런 너를 어떻게 대해야 할지, 말 한마디 행동거지 하나가 조심스럽기도 했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누군가의 통제가 없으면 불안하고 무언가 성취할 수 없을 것만 같다고 걱정하는 너를 보면서 가해자가 너의 삶에 드리운 그림자가 얼마나 깊은지, 나는 소리 없이 얼마나 분노했던지……. 너를 계속 통제하다가 네가 성인이 되어 그 틀을 벗어나려고 하자, 모든 지원을 끊어버리며 그걸 무기 삼아 또다시 너를 통제하려고 했던 ‘가족’이라는 이름의 가해자.

4월 어느 날이었던가, 넌 엄마랑 1년 만에 통화를 하게 되었지. 엄마 보고 싶다며 영영 울다가 내가 당할 때 엄마는 왜 날 보호해주지 않았냐고 따지자, 엄마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냐며 가해자를 두둔했지. 그날 너는 통곡을 하며 울었다. 엄마와의 관계 때문인지 너는 여자들은 다 널 질투하거나 싫어할 거라고 생각해 왔으며 여자들에 둘러싸여 사는 게 낫설다고 남자가 그림다고 했었어.

그렇게 많은 얘기를 나누며 잘 지내던 5월의 어느 날, 수능 지원 문제로 얘기를 나누다 네가 “선생님들이 내 인생의 방해물 같다”고 했을 때 허걱, 나는 놀랐고 내가 존중받지 못했다는 생각에 눈물이 흐르더라. 네가 뱉은 말의 무게감과 내가 받아들인 말의 무게감이 달랐기에 며칠 동안 널 보는 것이 힘들 정도로 그 말을 소화하기 쉽지 않았지. 다음 날 귀가 시간을 넘겨 들어와서 별로 미안해하지 않으면서 “벌칙 적으면 끝 아니에요? 선생님이 걱정하는 것까지 신경쓰기 귀찮아요.”하는 너에게 결국 나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며 화를 내고야 말았지.

D야. 그렇게 너와 내가 냉랭했던 며칠 간, 이 야간활동가라는 직책이 열린터 친구들과 거리를 둘 새 없이 매일 부대껴야 해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입장 바꿔 생각해 보니, 너 또한 야간선생님과 냉랭하다는 게 얼마나 불편할지……. 가족과 단절한 아픔을 가지고 맘 편히 쉴 공간 없는 너에게 열린터는 어떤 공간이어야 할까.

참, 벌칙 적으면 끝 아니냐는 너의 발언은 규칙과 벌칙이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 현재 규칙의 수위는 적절한지, 활동가들의 논의에 불을 붙였단다. (그리고 보면 넌 정말 활동가들에게 많은 고민꺼리를 던져주는 고민제조기!)

D야. 너는 많은 자원을 가졌고 네가 가진 자원을 활용할 줄 아는 사람이다. 또 너는 아무리 싸우고 관계가 틀어진 사람이라도 그 사람의 장점을 인정하는 줄 아는 사람이지. 스스로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쉽사리 받아들이지 못하는 너의 기질을 두고 어떤 동료는 나와 닮았다고 하더구나. 하지만 네 방에 붙어있는 큰 종이에 깨알같이 적혀있는 너의 포부, 지금부터 다시 수능 공부를 해서 한의대에 들어가고 그 등록금을 내려면 8천만원의 빚이 생기고 돈을 벌어서 그 빚을 몇 살까지 다 갚을 수

있는지, 나라면 감히 꿈꿀 수 없는 그런 미래계획을 꿈꾸고 계획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너다. 그런 너의 에너지를 쳐내고 제한하는 방식이 아니라, 네가 원하는 방향으로 집중시키려면 어느 시기에 어떤 지원이 적절할지 고민이 깊단다.

그리고 보니 D야, '상처입은 한 마리 새'처럼 힘없고 날개 처진 모습으로 열린터에 왔던 네가 이제는 활동가들에게 도전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을 보면 네 마음의 힘이 많이 자란 것 같아 고맙고 기쁘다. (물론 서운할 때도 있어!) 어제의 너와 오늘의 너는 비슷해 보이지만, 1년 전의 너와 지금의 너는 많이 다르다는 것 아니? 그 사실은 열린터 활동가들이 이 일을 지속할 수 있는 큰 동력이기도 하다.

요새 나는 열린터가 다가올 새로운 3년을 어떤 마음으로 맞아야 할지 고민이 많다. 그동안 안정적인 운영에 적지 않은 시간을 들인 만큼 이제는 더 풍성해져야 할 텐데 말이지. 여성주의 운영철학을 견지하면서 생활인들의 의견을 더 많이 반영할 수 있는 열린터, 더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고 소통하는 열려있는 열린터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쿠, 머릿속이 복잡하구나..... (밤에 잠이 안 와!)

아..... 이제 와 돌아켜보니 지난 3개월간, 나에게 와서 나를 안고, 나에게 너희의 얘기를 해 주고, 나에게 짜증을 내고 잠 못 들게 하고, 말을 안 들어서 나를 진흙탕에서 허우적거리게 만들고....., 그리고 나서 또다시 웃어준 너희. 나를 희노애락의 바다에서 넘실대게 해 준 너희가 있었기에 내가 이 세상에서 또 한 계절을 살 수 있었네. 정말 그러네.....

D야. 우리는 앞으로도 새털같이 많은 날들을 함께 보내야 한다. 우리는 또 싸울 수도 있겠지. 사람의 문제이기에 정답이 없고, 나는 또 후회하고 답답해하며 숙직 방문을 잠그고 긴 한숨을 쉬거나(매일 나의 한숨을 받아주는 고마운 숙직방!), "It's not about me."를 만트라처럼 외워야 할 때도 있겠지. 우리, 서로를 포기하지 말고 우리의 삶에 주어진 과제들을 함께 풀어나가며 또 지지고 봐야보자꾸나. 그게 바로 변증법적 관계(사람과 사람이 만나가는 모든 과정의 총체!) 아니겠니?

(2011년 여름 숙직 방에서)

※ 나랑 옛 인연들을 놓으니 새 인연들이 들어옵니다. 관계에 이름을 붙이고 규정하려 하기 보다는 지금, 이 순간, 우리가 공감하고 소통하고 있음에 기뻐하렵니다

열린터
다이어리

5~6월 비폭력대화

6.6 다큐멘터리 '종로의 기적' 관람

6.8 고 장자연 시민법정 배심원으로 참여

6.11 보쌍 활동가와 함께 한 타로 상담

6~7월 반성매매인권행동 이름 활동가와 함께 한 성교육



해물부추전과
닭가슴살감자볶음

보장 | 본 상담소 참여기획팀

요즘 직장인들의 점심식사 한 끼가 1만원이 넘는다는 기사를 보셨죠? 구내식당을 이용한다. 도시락을 싸온다 온갖 수를 내보지만, 참 어렵습니다. 안 그래도 어려운 살림에 밥값까지 천정부지로 치솟으니 모두가 울상입니다. 이런 어려운 시국에 상담소 활동가들은 밥은 잘 챙겨먹고 다니나? 다들 궁금하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짜잔~, 상담소의 점심밥상입니다.

아시다시피 상담소 활동가들은 매일 식사 당번이 있어서 돌아가면서 식사를 준비합니다. 좁아터진 상담소 부엌에서 무슨 밥을 해 먹을까 싶지만, 지지고 볶고 정성을 다해 만든 요리를 보면 어느 식당 정식 부럽지 않습니다.

이번호에서는 토리 활동가가 만든 해물부추전과 닭가슴살감자볶음을 소개해드릴게요. 토리는 밥상 앞에서는 말이 없어집니다. 남들이 웃고 떠드는 시간에도 정말 묵묵히 밥만 먹고 있어요. 그건 토리가 특별히 양가집 규수라서 암전을 떠날기 보다는, 너무 너무 음식을 사랑하기 때문이지요. 오롯이 밥

먹는 데 집중하기 때문에 사람들과 이야기할 여유가 없거나봐요. 토리는 상담소에서 밥 준비하고 밥 먹는 시간이 가장 즐겁대요. 그래서 항상 푸짐한 밥상을 준비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줍니다.

쫄쫄 다진 부추에 당근, 양파, 홍고추 등 각종 야채를 썰어놓고 비지락을 넣어서 노릇노릇하게 부치면 맛있는 해물부추전이 됩니다. 중간에 까맣게 태운 부분은 얼른 뒤집어서 안 보이게 해놓아요. 그래도 맛있으니까 괜찮아요. 감자 껍질을 벗기고 파리고추와 닭가슴살을 넣은 후, 고추장과 마늘을 듬뿍 넣고 얼큰하게 조리봅시다. 닭 손질하기가 귀찮아서 닭볶음탕을 만들기 힘들 때 닭가슴살 통조림을 대용으로 사용해 보세요. 훨씬 쉽고 간단하지만 닭볶음탕과 비슷한 맛이 납니다. 시원한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맛입니다.

하지만 이런 훌륭한 밥상이 그냥 딱딱하고 나온 건 아닙니다. 상담소의 밥상이 만들어지기까지 많은 회원분들이 여러 가지 반찬들을 후원해주고 있기 때문에, 더욱 풍성한 밥상을 마주하게 되었지요.

오늘의 밥상은 미소 상담활동가님과 때비 회원님이 후원해주신 것입니다. 미소님은 비오는 여름철에는 해물부추전이 딱이라며, 집에서 각종 야채를 다듬고 해물까지 준비해서 가져오셨습니다. 상담소 활동가들이 그냥 밀가루만 풀어서 바로 부추전을 만들 수 있겠어요.

때비님은 매달 '공세알'에서 유기농 야채를 주문해서 상담소로 보내줍니다. '공세알'은 나눔이(소비자)와 키움이(생산자)가 함께 의논하여 결정하여 농작의 수익물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때비는 하자센터를 졸업한 친구들이 '공세알'에서 키움으로 일하게 되어서, '공세알'을 알게 되었다고 해요. 사진에서 유난히 작고 올망졸망한 감자들 보이시죠? 농약 치지 않고 공세알 키움들이 정성껏 키워내서, 이렇게 작고 예쁘게 영글었습니다.

미소님, 때비님 이렇게 맛있는 밥상을 마주

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활동가들은 잘 먹고 힘내서 더 열심히 일할게요. 다음 호에는 더 맛있고 즐거운 밥상 이야기로 여러분을 찾아올게요. 안녕~~.



재료를 다듬고 있는 토리활동가



작고 올망졸망한 감자



파리고추를 한 움큼 넣고 끓여요~



부추전 반죽을 떠서 불 위에 올려요~

※ 보장 '갯갯한 속마음'이라는 순우리말. '한번 뿐인 인생 후회하지 말자'를 모토로 보정있는 인생을 살아보려고 하였으나, 인생은 종종 시궁창.....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게 최대 장점이나 단점

상담소를 응원하는 특별한 P·A·R·T·Y

김두나 | 본 상담소 기획조직국장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부에서 운영하는 단체인가요?”

“상담소 활동가 월급은 정부에서 주는 거죠?”

이 질문은 아마 상담소 활동가들이 가장 많이 듣는 질문 중 하나일 겁니다. 상담소 이름 앞에 붙은 ‘한국’이라는 단어 때문일까요? 상담소가 정부에서 운영하는 기관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실 한국성폭력상담소는 정부가 아니라 시민 여러분의 힘으로 운영되는 NGO입니다. 상담소 전체 운영비의 60%가 회원들의 회비와 시민들의 후원금으로 충당되고 있지요. 정부에서 보조하고 있는 운영비는 전체 예산의 12% 정도에 불과합니다.

회원이 되어 정기적으로 후원을 하거나, 일일호프, 후원콘서트 같은 후원행사에 참여하는 등 상담소를 후원하는 방법은 다양한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도 ‘모금 파티’라는 특별한 방법으로 상담소를 후원하는 방법을 여러분께 소개하려고 합니다. 모금파티는 기부를 위한 작은 모임이나 파티를 열어, 참가한 사람들이 파티도 즐기고 동시에 후원도 하는 일석이조의 모금방법입니다. 모금파티는 어떤 주제나 규모로도 가능하답니다. 친구들을 초청해 작은 파티를 열거나, 돌잔치, 생일, 결혼식 같은 특별한 날을 이용해 선물이나 축의금 등을 모금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또 동창회나 동호회처럼 평소 참여하고 있는 모임에서 후원을 위한 식사자리를 마련하거나 간단한 행사를 열어 주위 사람들에게 기부를 독려할 수도 있고요. 모금

파티는 기부문화가 한국에 비해 오래 전부터 자리 잡은 외국에서는 활발하게 활용되는 방법이라고 해요. 인권단체인 국제 앰네스티 (Amnesty International) 에서는 후원을 위한 AmnesTea 라는 티파티가 널리 열린다고 합니다. AmnesTea는 앰네스티를 후원하는 사람들이 모여 차(茶)와 대화를 나누며 기부도 하는 모금파티지요. 전세계 방방곡곡에서 많은 사람들이 티파티를 열어 앰네스티를 즐거운 마음으로 후원하고 있다고 합니다.

Flea Market 벼룩시장
7월 25일 2-7PM

요즘한 미용실 거머리에서 한국 성폭력 상담소를 후원하는 벼룩시장을 엽니다. 종남에서 10년 동안 사 모은 주인장의 애장품도 토크 쏟아져나올 예정이에요. 우리 것지만 나는 낯이 익숙을 동으며 후원도 하고 신나게 놀아 보아요.

☞ 물건을 팔고 싶은 분들은 7월 20일까지 caml_mx@naver.com으로 신청해주세요.
☞ 자세한 내용은 http://camilla.co.kr를 참조해주세요.

Camilla
Tel: 02-322-9053

Camilla Salon is having a flea market to benefit the Korea Sexual Violence Relief Center. If you would like to sell items at the flea market, please e-mail sunlee@gmail.com. Visit http://camilla.co.kr to find out more. Join us at the flea market on July 25, 2-7pm.



최근에는 상담소에도 이런 특별한 파티를 열어 상담소를 응원하는 든든한 후원자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작년에는 상담소 근처에서 헤어샵 ‘까미라’를 운영하시는 까미님께서 고객 분들과 함께 벼룩시장을 열어 수익금을 상담소에 기부하셨습니다. 장소부터 홍보까지 꼼꼼하게 신경써주셨던 까미님이 떠오르네요. 그리고 재작년에는 정년을 맞으신 김화영 회원님께서 자신의 정년퇴임식에 오신 손님들께 선물 대신 상담소 후원을 요청해 주셨던 아름다운 일도 있었답니다. 또 정진욱 회원님께서 회원님 댁에 친구들을 초대해 직접 준비하신 식사를 대접하며 상담소 후원을 위한 파티를 열어주시기도 했어요. 글쓰기 모임 Seoul Writers' Workshop은 후원 행사를 열어 티켓 판매 수익금을 상담소에 기부하기도 하고, 바느질 동호회 Seoul Stitch'n Bitch는 상담소 후원을 위한 작품 판매 행사를 열어 수익금을 후원하셨습니다. 얼마 전 병원을 새롭게 개원하신 홍순기 이사장님께서도 동창 분들을 초대하는 자리에서 개원 선물 대신 상담소 후원금을 모금해주셨고요. 연일 이어지는 훈훈한 소식으로 상담소는 힘이 납니다. 파티에 참가하셨

던 분들도 즐거운 마음으로 기꺼이 후원에 참여하셨다는 소식에 더욱 기쁩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후원한다는 것은 단순히 '돈 내는 것'을 넘어 성폭력피해생존자에게 힘과 용기를 보내고, 평등하고 평화로운 세상을 위한 활동에 참여하는 것이지요. 모금파티는 여러 사람이 모이는 기회를 통해 보다 많은 분들과 이런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인 모금방법입니다.

여러분도 한 번 상담소를 응원하는 파티 플래너가 되어 특별한 파티를 열어 보시면 어떨까요? 어떻게 준비를 시작해야 할지 막막하거나, 사람들이 모이지 않을까 봐 또는 모금이 잘 되지 않을까 봐 주저하고 계시다면 지금 당장 상담소로 연락주세요. 반짝반짝한 아이디어로 푹푹 뭉친 활동가들이 멋진 기획팀이 되어 함께 하겠습시다!

**모금파티
이렇게 해볼 수 있어요!**

STEP 1 기획하기

- 언제 _ 생일, 기념일, 주말, 송년회 등 언제든지
- 어디서 _ 집, 직장, 카페, 식당 등
- 초대 _ 친구, 직장동료, 가족, 동호회 회원 등

STEP 2 준비하기

- 초대연락하기 _ 모금파티에 대한 설명이 담긴 초대장, 이메일, 전화연락 등
- 상담소에 소개 자료 요청하기 _ 상담소 소개영상, 브로슈어, 소식지, 기념품 등
- 도와줄 사람 찾기 _ 친구, 가족, 상담소 활동가 등
- 프로그램 준비하기 _ 상담소 소개, 기부 의미 나누기, 자기소개, 퀴즈 등
- 식사, 간식, 음료 준비하기

STEP 3 모금파티 열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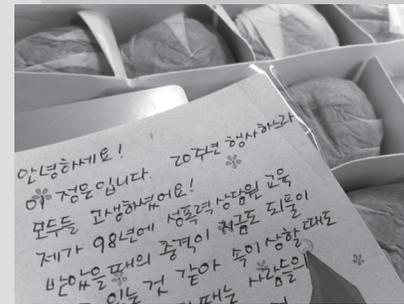
- 신나게 파티 즐기기 _ 준비한 프로그램 진행하기, 먹고 마시기
- 파티 후 참가자들에게 감사인사 전하기
- 상담소에 후원금 전달하기

예를 들면
<상담소 후원을 위한
'두나의 생일파티',
<아기 '토리'가
기부를 시작합니다.>
<토리의 특별한 돌잔치>

※ 김두나 집에서 텃밭거리를 잘합니다. 모든 여자들에게 맘껏 텃밭거릴 수 있는 집이 생기기를 바라는 집귀신 페미니스트.

흔한,
기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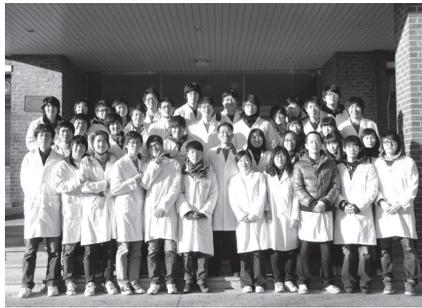
기
사
|
|
^ ^
—



♥ 이정은 회원님이 20주년 홈커밍데이 행사를 마치고 활동가들이 너무 수고했다며 호두과자를 한 상자 보내주셨습니다. 상자 안에 정성스레 쓴 편지 한 장을 받고 활동가들은 너무나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상담소를 사랑하는 회원님들의 정성으로 앞으로도 힘차게 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지난 5월 월드벨리댄스데이 자선행사(RAK 2011) 조직위원회에서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후원해주셨습니다. 월드벨리댄스데이를 기념하기 위해서 전세계적으로 공연이 열리는 데, 한국 주최측에서는 매년 한국의 여성들을 위해서 공연 수익을 기부한다고 합니다. 공연 수익 전액을 기부해주신 월드벨리댄스데이 조직위원회와 공연에 참가한 댄서 및 자원봉사자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 상담소 전 활동가인 키라가 해부학수업 시간에 상담소를 후원하자는 제안을 해서, 같이 수업듣는 친구들이 후원금을 모아서 보내주었습니다. 전북대학교 수의학과 08학번 여러분, 너무 고맙습니다. 멀리 전주에서도 상담소를 잊지 않고 지지해주는 키라도 화이팅입니다!



♥ 상담소를 열렬히 사랑하시는 허정의 회원님은 추운 겨울에는 따뜻한 코코아, 나른한 봄에는 상큼한 비타민C, 계절이 바뀔 때마다 사과, 메론, 수박 등 제철과일을 보내주고 계십니다. 택배상자에 적혀있는 허정의 회원님의 이름을 볼 때마다 활동가들은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 지난 1월에 한 성폭력 생존자분이 전화를 걸어오셔서 가해자에게 합의금을 받았는데 좋은 일에 쓰고 싶다고 상담소 평생회원을 가입하셨습니다. 지난 3월에는 다른 성폭력 생존자분이 상담을 받고는 너무 고맙다고 평생회원을 가입하셨습니다. 이렇게 멋진 분들을 평생회원으로 맞이하게 되어서 상담소로서도 큰 영광입니다.

폭력생존자 말하기대회 포스터부터 올해 20주년 행사 포스터에 이르기까지 너무 예쁘다며 어디서 만들었느냐는 문의를 많이 들었는데요. 디자인이즈를 자신있게 추천해드립니다!

♥ 홍순기 이사장님이 병원 이전 기념으로 서울대학교 의대 동창생들이 선물을 한다는 것을 마다하고, 대신 상담소 후원금을 모금해주셨습니다. 멋진 아이디어로 상담소를 후원해주신 홍순기 이사장님, 사랑합니다!

♥ 민초 회원님이 전자렌지가 고장나서 못 쓰고 있다고 하소연하는 상담소 블로그를 보고 전자렌지를 상담소로 보내주셨습니다. 유연택 회원님도 전자렌지를 사주겠다고 하셨지만 한 발 늦은 관계로, 대신 부엌칼을 2개나 사주셨습니다. 민초 님, 유연택 님, 저희 활동가들 밥 잘 해먹고 있어요. 감사드려요.

♥ 디자인이즈의 추정희 회원님은 상담소의 어려운 사정을 듣고서, 작년부터 <나눔터>와 <반성폭력>의 디자인비를 상담소로 후원해주시고 있습니다. 작년 7회 성

♥ 그 외에도 이 자리에 다 소개해드리지는 못했지만, 상담소를 오며가며 필요한 물품이며 명절선물, 간식거리, 반찬거리를 챙겨주시는 많은 회원님들 모두 감사드려요.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새로 오신 (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반갑습니다.

김기혜 김다은 김동래 김미희 김민성 김선희 김세희 김엘림 김연경 김연정 김예지 김외자 김이슬 김재훈 김해리 김효진 노민희 문지은 서석호 송치선 송호균 안정은 안재영 오혜진 윤수련 윤인영 이정은 이선미 이승기 이영란 이인숙 이지선 전정옥 정대근 정동연 정유림 정정기 정창수(박경숙) 조성혜 주리아 지은정 최선아 최영지 최은미 한이계영 황재호 황정임

2011년 4월 1일부터 2011년 7월 31일까지 후원해 주신 분들입니다. 감사합니다.

100주년기념교회 강가람 강근정 강기순 강남식 강동화 강득록 강명지 강민서 강보길 강선미 강수준 강영 강영미 강영순 강영화 강은주 강이현주 강인화 강정희 강지이 강해숙 강희진 계경문 고금미 고미라 고보경 고은별 고재경 고정남 고정삼 고효주 곽옥미 곽윤이 구민지 구민희 구분준 권경희 권구홍 권기우 권기현영 권민정 권민혁 권소영 권오란 권인숙 권주희 권혜수 금철영 김가희 김강자 김경선 김경아 김경애 김경태 김경현 김경화 김경훈 김경희 김광만 김광진 김금선 김기혜 김나연 김난형 김다미 김다은 김대숙 김덕현 김도연 김동래 김동형 김동희 김두나 김들순 김라희 김매정 김명숙 김문빈 김미경 김미정 김미라 김미랑 김미영 김미영 김미우 김미주 김미희 김민규 김민미 김민선 김민성 김민정 김민정 김민지 김민환 김범은 김병필 김보연 김보화 김봉섭 김상미 김상민 김상호 김상의 김새별 김석제 김선정 김선미 김선민 김선에 김선화 김선희 김선희 김성동 김성문 김성자 김세중 김세훈 김세희 김소명 김소연 김소연 김수 김수민 김수연 김수정 김수진 김숙영 김순자 김승구 김아리 김애라 김애란 김양지 김엘림 김연정 김연정 김연우(김태진) 김연정 김연지 김연진 김연희 김영서 김영선 김영세 김영신 김영애 김영환 김예람 김예지 김옥주 김용란 김용백 김원식 김원정 김원희 김유진 김유진 김유진 김윤경 김윤희 김윤희 김은경 김은숙 김은아 김은정 김은정 김은지 김은하 김은혜 김은희 김웅진 김의창 김외자 김이미나 김이슬 김인에 김인혜 김일률 김자경 김자현 김재동 김재원 김재운 김재훈 김정민 김정수 김정완 김중수 권상범 김중희 김주영 김주희 김준호 김지미 김지선 김지연 김지는 김지현 김지현 김지혜 김지혜 김지혜 김진숙 김진영 김진희 김준경 김탁환 김태섭 김태환 김택진 김하나 김하나 김하연 나성일 김하정 김학실 김한상 김한선혜 김해경 김해리 김현 김현경 김현란 김현성 김현수 김현숙 김현정 김현정 김현주 김현주 김현진 김형수 김혜정 김혜련 김혜숙 김혜순 김혜연 김혜영 김혜영 김혜정 김혜정 김혜진 김혜연 김화영 김효선 김효정 김효진 김희정 김희정 김희재 나길희 나미나 나윤희 나인선 남길석 남덕우 남성희 남정현 남현미 남현우 노경란 노귀연 길옥 노미선 노민희 노복미 노선이 노수희 노유성 노재복 노정주 노주희 노지성 도병욱 도상금 라길자 류란 류종현 류진봉 목소희 문경희 문기선 문길환 문김채연 문미라 문미정 문수연 문소영 문영민 문준희 문지영 문지은 문현정 문효진 박경미 박경훈 바다위 박덕임 박명숙 박미경 박미라 박미선 박미숙 박미영 박미향 박미현 박민주 박병현 박보영 박상규 박상순 박상희 박상희 박서원 박선숙 박선희 박성주 박세정 박소라 박소연 박수연 박수현 박정옥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정은 박준선 박주연 박준민 박준숙 박지나 박지영 박진숙 박진표 박창경 박하윤경 박현달 박현순 박현이 박현주 박현준 박혜진 박효정 방기연 방상의 방은제 배경 배은경 배자하 배재훈 배정원 배정철 배지연 백명숙 백미록 백선희 백성길 백세희 백지선 백현 변계희 변순임 상목스님 서권일 서명선 서명호 서미현 서민자 서백열 서범원 서석호 서순진 서영주 서예린 서용완 서윤숙 서정기 서정에 서정표 서정훈 서주연 서태자 서해인 서희서 서희순 선희갑 설동민 설연자 성나라 성지은 손경이 손기주 손명구 손명하 손미연 손보경 손연성 손우성 손준성 손희정 송미현 송민성 송수영 송승훈 송애람 송유신 송은숙 송은주 송지선 송치선 송혜영 신경우 신경혜 신나영 신동현 신동훈 신명숙 신문창 신상숙 신상호 신선에 신성용 신영미 신원재 신원진 신은재 신은주 신정혜 신준훈 신현 신현정 신현주 신혜성 심난숙 심소영 심수희 심진실 심창교 심현실 심혜련 안문환 안민 안보라 안윤미 안재훈 안정은 안창혜 안재영 안철민 안초롱 안현욱 안홍자 양미초 양민희 양성옥 양수안나 양애경 양영희 양영희 양은주 양지혜 양창수 양현경 양현구 양효준 엄경출 엄인숙 여한숙 엄명덕 오경희 오광수 오다현 오미근 오세희 오송환 오숙희 오승이 오신혜 오자영 오정진 오정희 오진아 오현숙 오현주 오혜란 오혜진 옥민영 우안녕 우안 우은희 원경주 원민정 원민혜 원성혜 원순경 원창연 원형섭 원혜숙 유경란 유경희 유계옥 유배숙 유상열 유선옥 유선원 유세정 유여원 유연택 유예리 유은주 유재영 유정호 유혜숙 유향순 유현광 유현숙



육상근 육향순 윤나래 윤법석 윤석남 윤소정 윤소희 윤수련 윤수연 윤숙경 윤애리 윤양지 윤양현 윤연숙 윤영란 윤영숙
 윤영호 윤영흠 윤용미 윤인영 윤자영 윤정희 윤지영 윤지원 윤지희 음선화 이경로 이경미 이경숙 이경아 이경아 이경아
 이경은 이경자 이경호 이경환 이계형 이고은 이광숙 이규화 이금란 이김명란 이나래 이나영 이남주 이내화
 이다정 이도규 이도원 이도현 이명숙 이명숙 이명철 이명희 이문주 이미경 이미정 이미정 이미현 이민정 이민철 이병주
 이보라 이부덕 이상근 이상미 이상연 이상은 이새롬 이서영 이서지 이선경 이선미 이성수 이세원 이소림 이소영 이소
 희(권승엽) 이송이 이수안 이수용 이승구 이승기 이승숙 이승진 이신정 이어린 이연실 이연정 이영기 이영란 이영미
 이영아 이영주 이영택 이예지 이용창 이원경 이원경 이원수 이원실 이원홍 이유리 이유정 이유정 이윤경 이윤상
 이윤선 이윤성 이윤옥 이윤희 이은 이은미 이은비 이은상 이은심 이은애 이은영 이은주 이은지 이은현 이은화 이인숙
 이인환 이재순 이재은 이재민 이정민 이정봉 이정숙 이정순 이정아 이정은 이정은 이정화 이종국 이주현 이주현
 이준구 이준범 이준형 이지선 이지선 이지영 이지은 이지현 이지혜 이진숙 이진아 이찬희 이창원 이창윤 이쾌희
 이태숙 이혜사랑 이향심 이현숙 이혜경 이혜정 이혜진(이진주) 이호균 이호중 이호진 이홍연 이효섭 이희경 이희수 이희영
 이희화 이정환 임복선 임선자 임수연 임순영 임승환 임자영 임주희 임지숙 임치선 임치순 임현홍 임홍섭 임희운
 장규형 장다정 장미정 장민경 장서영 장성희 장순례 장영애 장영희 장유진 장윤경 장윤성 장윤정 장은미 장익주 장정희
 장중순 장진 장혜란 장효정 전광우 전민주 전병미 전보임 전아람 전연배 전영미 전영애 전유경 전정옥 전정현 전지현
 전혜영 전호안 정경아 정영애 정교화 정귀원 정다미 정대근 정대성 정덕기 정동범 정동연 정두영(강혜숙) 정명중 정문영
 정민이 정복련 정세원 정소린 정소영 정숙경 정순옥 정순희 정안나 정여진 정영석 정영선 정예지 정옥실 정유림 정유석
 정윤정 정윤아 정은선 정재훈(나선영) 정정기 정정희 정정희 정준애 정지민 정지현 정진옥 정진화 정창수 정창희 정혜랑
 정현 정현희 정혜신 제갈향진 조계삼 조규선 조나단 가이 파울러 조민우 조상희 조서연 조선주 조성천 조성혜 조소연
 조영선 조용범 조윤주 조은 조은숙 조은영 조은정 조은희 조인석 조인섭 조인옥 조일 조일래 조재욱 조정은 조중신
 조지혜 조진희 조현미 조현아 조형원 조혜영 존타클립 주광용 주리아 주명희 주혜정 주희진 지승경 지은정
 지인순 진석중 진태란 차성안 차인순 차현영 채우리 채하승연 채현숙 채희영 천정환 최경식 최광락 최광식
 최광옥 최규영 최기용 최동석 최명숙 최미정 최미숙 최보원 최석우 최선규 최선아 최성숙 최성옥 최성호 최성화
 최소란 최수연 최수연 최수인 최숙희 최순미 최아림 최연순 최영애 최영지 최옥경 최왕열 최용득 최유미
 최유진 최윤미 최윤수 최윤정 최은경 최은영 최정림 최정은 최정임 최정희 최주정 최지나 최지녀 최지영 최현무
 추민주 추정의 추주형 추혜인 춘옥 탁옥희 표현 하다영 하대호 하수는 하은주 하종석 하주선 하진옥
 한국아마자키마작(주) 한기모 한문형 한미화 한병규 한보경 한석규 한수현 한승진 한승희 한양희 한영규 한영미
 한윤정 한이계영 한재철 한전부녀회 한희정 허경현 허남주 허라금 허복옥 허순만 허은주 허이화 허정익
 허준석 허효정 현정순 홍만희 홍민철 홍보연 홍상희 홍성미 홍순기 홍유진 홍윤기 홍은정 홍일선 홍재진
 홍진경 홍혜선 황미선 황상하 황성기 황승희 황순경 황재호 황인관 황정민 황정진 황지성 황지영 황지윤

평생(후원)회원님을 소개합니다. 상담소를 아끼는 마음 감사합니다. ^^

강대열 강정자 강지연 강진자 강학중 고정남 광미정 권윤진 권익승 권진구 권형구 김경현 김덕현 김명희 김미주 김삼화
 김선영 김예지 김옥란 김재련 김정희 김준길 김진영 김태진 김혜정 김화영 김효선 김희숙 노주희 니콜라 레나레비
 명진숙 문경란 문혜란 민남기 박기원 박미란 박상순 박서현 박윤숙 박윤순(YM건설) 박지만((주)EG) 배경 배삼희
 배정철 변대규 변혜정 손용석 시연숙 신동연 신상호 신혜경 안백린 안채영 안형정 야기시노부 우기호 유소영 유효상
 이경환 이경훈 이기철 이덕화 이도림 이명선 이명숙 이미경 이병규 이병우 이상구 이승기 이안나 이영숙 이영애 이영희
 이유미 이유미 이유정 이정숙 이혜경 이혜사랑 이화영 이효숙 임미화 임순영 장병환 장윤경 장필화 전성혜 정경자
 정동범 정몽훈((주)효광) 정안나 정영택 정재정 정진옥 정휘재 조선훈 조성천 조영황 조인석 조일래 조혜옥 주관수
 채영수 천수빈 천정환 청담마리산부인과 최보원 최영애 최정순 한국웰테크 허정 홍성규 홍순기 홍승아